KOTRA자료 20-033

2020 권역별 진출전략

아프리카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 4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
   가. (시장) 자원 거점에서 소비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 중 ····· 5
   나. (통상)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공식 출범 ····· 6
   다. (산업) 자원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 다각화 추진 확대 ····· 7
   라. (조달) 아프리카 최대 시장은 공공조달 분야 ····· 8
   마. (사회)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 불안 해소 노력 지속 ····· 10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1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11
   가. 정치 환경 ····· 11
   나. 경제 환경 ····· 15
   다. 산업 환경 ····· 18
   라. 정책·규제 환경 ····· 22
2. 시장 분석 ····· 25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25
   나. 교역 ····· 29
   다. 투자 ····· 34
   라. 프로젝트 ····· 37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41
   가. 교역 ····· 41
   나. 투자 ····· 45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49

Ⅲ. 진출전략 ····· 52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52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53
3.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64
4. 진출 시 유의사항 ····· 71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73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83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89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90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Sub-Saharan Africa, 이하 SSA)는 3.6%대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계 평균(3.5%)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IMF)

* SSA(Sub-Saharan Africa)는 아랍권 북아프리카(중동) 외 지역으로 아프리카 54개국 중 49개국 포함

* SSA 경제성장률 추이 : 2.9%('17) → 3.1%('18) → 3.4%('19) → 3.6%('20)

주요 지역별 경제성장 전망치

	2017	2018	2019	2020
세계 평균	3.8%	3.6%	3.2%	3.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9%	3.1%	3.4%	3.6%
선진국	2.4%	2.2%	1.9%	1.7%
신흥국	4.8%	4.5%	4.1%	4.7%

자료 : IMF(2019년 10월 기준)

- **(기회요인)** 원자재 가격 회복, 농업 및 광업 생산성 증대,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 **(위협요인)** 유가 불안정에 따른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 경제 저성장, SSA 최대 경제 대국인 남아공의 경제성장 부진 지속이 주요 리스크 요인

아프리카 주요국의 산업다각화 정책 지속추진, 외국인 투자 확대, AfCFTA의 효과적인 이행 등이 경제성장률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과제

- (산업) 인프라 지속 확충 및 제조업 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 노력 지속
  - (인프라) 중국의 적극적인 대(對)아프리카 인프라 투자로 2020년 SSA 건설시장은 성장세를 거듭하며 1,100억 달러 규모를 돌파할 전망(자료 : Fitch)
  - (ICT) 케냐, 탄자니아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모바일을 통한 결제시장 형성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라 ICT 산업이 빠르게 성장
  - (소비재) 소득 증가 및 신흥 중산층(블랙다이아몬드 세대) 등장으로 소비재 시장 지속 확대, 빈부격차로 인해 저소득층 시장(Bottom of Pyramid, 이하 BOP) 또한 절대적인 규모를 유지

– (의료) 2023년까지 연평균 10.6%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전망

○ (투자) 중국, 일본, 중동 등의 대아(對阿)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460억 달러 유입 전망

○ (통상)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TA) 공식 출범으로 역내 교역량은 지속증가 예상(2023년까지 2010년 대비 52.3% 증가 기대)

나.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e)	2019년(f)
인 구		백만 명	969	995	1,023	1,050	1,078	-
명목 GDP	SSA	십억 달러	1,827	1,662	1,546	1,680	1,699	-
	남아공		351	317	296	349	368	352
	나이지리아		568	495	405	376	397	475
	케냐		61	64	69	79	88	91
	에티오피아		56	64	74	82	84	85
	탄자니아		50	47	50	53	57	60
1인당 명목GDP	SSA	달러	1,886	1,669	1,511	1,599	1,574	-
	남아공		6,428	5,731	5,273	6,127	6,374	6,007
	나이지리아		3,223	2,730	2,176	1,969	2,028	2,363
	케냐		1,316	1,337	1,411	1,568	1,710	1,733
	에티오피아		567	639	717	768	772	780
	탄자니아		1,030	948	966	1,005	1,051	1,158
실질 성장률	SSA	%	4.7	2.8	1.2	2.5	2.4	-
	남아공		1.8	1.2	0.4	1.4	0.8	0.6
	나이지리아		6.3	2.7	-1.6	0.8	1.9	1.8
	케냐		5.4	5.7	5.9	4.9	6.3	5.8
	에티오피아		10.3	10.4	9.4	9.5	6.8	7.7
	탄자니아		6.7	6.2	6.9	6.8	5.2	6.6
실업률	SSA	%	5.9	6.1	6.3	6.1	6.1	6.1
	남아공		24.9	25.2	26.6	27.3	27.0	-
	나이지리아		4.4	5.3	6.2	6.0	6.0	-
소비자 물가상승률		%	4.40	3.86	5.49	5.32	4.01	-
총수출		백만 달러	452,289	343,075	316,706	366,192	419,688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8,054	5,548	4,609	5,396	6,229	-
총수입		백만 달러	524,740	454,349	386,811	412,704	469,378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9,900	7,559	8,858	7,495	6,419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72,451	-111,274	-70,105	-46,512	-49,690	-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68,439	-93,459	-54,939	-32,891	-39,389	-
해외 직접투자		백만 달러	9,763	8,290	7,983	11,868	7,583	-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 달러	41,911	44,547	32,633	28,117	31,786	-

주 :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IHS)
자료 : World Bank, UNCTAD, WTA, IHS Markit(2019년 10월 기준)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젊은 인구 증가 및 도시화 진전으로 브랜드와 가성비가 중요한 소비 시장 형성
※ AfCFTA 공식 출범으로 역내 교역 증가가 기대되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 제조업, 인프라 투자, ICT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노력 지속
※ 정치·사회적 불안요소가 잔존하나 각국 정부의 갈등 해소 노력 또한 지속

가. (시장) 자원 거점에서 소비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 중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젊은 소비시장 형성

○ 현재 전체 아프리카의 인구는 약 12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6%에 달하며, 2050년엔 2배, 2100년에는 약 44억 6천만 명(전체 인구의 36%)으로 증가할 전망(UN)

○ 빠른 도시화 진전을 기반으로 서구형 쇼핑 패턴으로 변화

– 도시화 진전에 따라 분산된 재래시장에서 탈피, 도시상권 중심으로 대형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소비시장 성장을 가속화

* SSA 도시화율 추이(%, UN) : ('10) 36.4% ⇨ ('30) 45.9% ⇨ ('50) 56.7%

* H&M, Zara, Cotton-on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아프리카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아프리카 소매업은 매년 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

'블랙다이아몬드 세대'를 기반으로 성장 중인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 젊고, 구매력을 갖춘 아프리카의 신흥 중산층을 일컫는 말인 '블랙다이아몬드 세대'는 고성장을 경험하며 미래를 낙관하고 소비 지향적

– 이들은 소셜네트워크(SNS)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

○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SNS 활용 마케팅도 활발

– 2018년 기준 아프리카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2,1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이래로 연평균 18%씩 증가(UNCTAD)

* 남아공 온라인 쇼핑몰 결제액, '17년 26.5억 달러→ '18년 38억 달러 수준으로 43% 급증(Paypal)

– M-Pesa, Jumia, Takealot 등 아프리카 토종 E-commerce와 M-commerce 동반 성장

* M-Pesa는 케냐 이동통신사 사파리콤이 '07년 론칭한 모바일 서비스로 은행 계좌 없이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으며, '17년 가입자 수는 3,000만 명을 돌파

* Jumia는 '12년 나이지리아에서 론칭 후 현재 20개 이상 아프리카 국가에서 운영, 50만 이상 판매업체를 보유했고, 2019년 뉴욕 증시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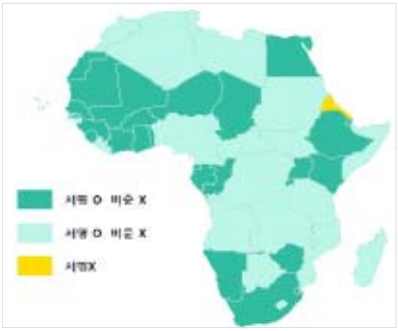
나. (통상)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공식 출범

2019년 5월 30일 AfCFTA 공식 출범, 7월 7일부터 운영 단계 돌입

- 총 12억 인구, GDP 2조 달러 이상 규모의 55개 아프리카연합(AU : African Union) 회원국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자 출범
  - 단순히 상품 교역만을 위한 FTA가 아닌 서비스,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등 전방위적 차원의 자유무역지대 탄생을 지향

- 2019년 7월 기준 55개 AU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총 54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명을 완료했으며 그 가운데 27개국*이 비준
  * 가나, 케냐, 르완다, 니제르, 차드, 콩고, 지부티, 기니, 에스와티니, 말리, 모리타니, 나미비아, 남아공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토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감비아, 시에라리온, 서사하라, 짐바브웨, 부르키나파소, 상투메 프린시페, 가봉, 적도기니

- 상품, 서비스 및 분쟁 해결에 관한 1단계 의정서 자체는 합의가 완료됐으나, 양허관세율표, 원산지 규정 및 2단계 의정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



자료 : SWAC/OECD

역내 교역 활성화 등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 시 현재 15%에 불과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이 2022년까지 5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MF는 AfCFTA를 통한 상품 및 노동 시장 확대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 지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자원에 의존하는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실업률 개선 등의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

- 단,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부족, 높은 정치적 리스크와 물류 리스크는 운송 인프라 및 제조시설 설립 투자 확대의 장애물로 작용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대규모 투자 동반 필요

- AfCFTA 출범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 환경을 갖춘 남아공, 케냐 등을 우선 진출국으로 고려 필요
  - 이와 동시에 향후 원산지 규정, 양허관세율 등 AfCFTA 세부 협상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다. (산업) 자원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 다각화 추진 확대

빈곤 해결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가 필수

○ 아프리카 경제는 원유, 광산물, 농산물 등 1차 산품에 전적으로 의존

– 자원 부국인 나이지리아, 남아공, 앙골라 등이 阿 경제를 주도하는 양상

○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원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감소 추세나, 에티오피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 비자원국은 제조업,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5~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특히,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인프라 투자는 비자원의존형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을 견인

○ 아프리카 노동 가능 인구는 2063년 20억 명에 이르며, 연간 1,000~1,200만 명의 청년 인구가 노동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

– 산업 다각화를 통한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이 시급

이에 아프리카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이 산업 다각화 추진 노력

○ (阿 각국 정부) 26개국 이상 산업화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 중

– 원자재 수출과 공산품 수입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 정책 시행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국가	정책	주요 내용
남아공	산업정책 액션플랜 (2018-2020)	• 산업개발구역 (IDZ), 특별경제구역 (SEZ) 조성 인프라, 세금, 통관 • 자동차산업육성계획 (APDP 2013-2020) 추진
나이지리아	경제회복성장계획 (2017-2020)	•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에 집중 • 농업 및 식량 안보, 에너지 공급 안정, 인프라 확대
케냐	국가산업정책 (2017-2030)	• 국내 제조 산업 보호 : 수입규제, 세제혜택 강화 • 섬유의류 (AGOA 활용), 자동차조립, ICT
탄자니아	종합산업발전 계획 (2015-2035)	• 국가발전 최우선 과제로 산업화 천명, 세제혜택 등 투자 장려 • 자동차조립, 석유화학, 농기계, 조선, 식용유, 섬유의류, 제약 지원

○ (국제기구) 단순 원조에서 산업화 지원으로 핵심 목표 변경

– UN, 세계은행, AU, AfDB 등은 다양한 산업화 지원 정책에 집중

* UN은 UNIDO(UN 산업개발기구), UNECA(UN 행정기관)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여성의 경제적 권한 증대, 녹색 산업, 에너지 효율 및 산업화를 위한 장기 금융 등 논의

○ (기업) 정부 및 국제기구 지원 하에 제조업 신규 진출 확대

– 외국 기업과의 협력으로 자동차 현지조립(SKD),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활발

제조업 및 인프라 산업 부흥과 함께 내수시장 확대, ICT 산업 발전 등 동반

- (제조업) 의류, 섬유, 가전 등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 활발
  - 저렴한 노동력, 유럽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
-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전력개발 등 인프라 건설은 阿 경제 성장을 촉진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는 아프리카 전체의 인프라 수요가 연간 1,300~17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 하의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역내 철도 건설 산업의 대부분을 주도 중
- (ICT) 모바일 뱅킹과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한 ICT 산업 발전
  - SSA의 모바일 산업은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평균 성장률(4.6%)을 기록(자료 : Fitch)하며 성장, 총 모바일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전망
  - 행정 처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 구축 노력 또한 지속

라. (조달) 아프리카 최대 시장은 공공조달 분야

SSA 조달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350억 달러로 추산

* OECD는 SSA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8%가 공공 조달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 2018년 SSA로 유입된 공적원조(ODA)는 528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
  -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금액이며,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가 3대 수혜국으로 전체 대(對)아프리카 ODA 금액의 약 20% 유입
  - 최대 공여국은 미국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EU가 13%, 국제개발협회(IDA)가 12%를 차지하며, 일본이 3% 점유율로 전체에서 9위 수준
- 부문별로는 사회, 경제 분야로의 ODA 유입이 전체의 62% 차지
  - 특히, 교육, 보건 부문의 ODA 시장은 각각 53억, 92억 달러로 그 규모가 큼

아프리카 ODA 공여국 및 수혜국(net disbursement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수혜국				공여국		
순위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에티오피아	4,177	8	미국	11,190	21
2	나이지리아	3,359	6	EU	6,851	13
3	탄자니아	2,584	5	IDA	6,326	12
4	케냐	2,475	5	영국	3,858	7
5	DR콩고	2,280	4	독일	3,691	7
6	남수단	2,183	4	글로벌펀드	3,059	6
7	우간다	2,008	4	AfDB	2,547	5
8	모로코	1,885	4	프랑스	2,362	4
9	모잠비크	1,776	3	일본	1,674	3
10	소말리아	1,760	3	캐나다	1,140	2
-	기타	28,373	54	기타	10,103	19
-	합계	52,800	100	합계	52,800	100

자료 : OECD(2019년 10월 기준)

공공조달 시장은 초기 진출은 어려우나 진출 성공 시 안정적인 거래 가능

○ 아프리카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정부재정 비중이 낮고, 자금 및 위험이 적은 국제기구 및 선진국 정부의 공적 원조 비중이 높은 편

– 阿 정부들은 대부분 파이낸싱 조달이 어려운바, 민관협력 방식의 프로젝트 (IPP/PPP)가 증가하는 추세

○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은 자국산 조달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프리카는 산업 기반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진출이 용이한 편

– 진출 후 좋은 품질과 사후 서비스를 통해 신뢰가 쌓이면 꾸준한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인근 국가로도 이어지는 경향

– 현지 유력한 에이전트 발굴이 공공조달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성공 사례) 탄자니아 의료조달청(MSD) 디지털 X-Ray 프로젝트 670만 달러 수주

- 1차 380만 달러, 2차 290만 달러 프로젝트 연속 낙찰
- 탄자니아 보건당국 및 의료기술인력으로 구성되었던 교육생들이 수료 후 본국에 돌아가 씨텍메디칼 제품 추천
- MSD는 남부아프리카공동체(SADC) 의료기기 공급도 담당하고 있어 인근 회원국으로도 확장 진출 가능

마. (사회)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 불안 해소 노력 지속

민주화가 진전되었으나,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 내전,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정치·사회 불안 요소 잔존

- 아프리카 국가 내 각종 정치·사회 불안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
  - 국가로서의 경험이 적은 아프리카는 정치-경제 간 분리도가 낮아 정치, 사회 변화가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
- 선거를 앞두고 불안사태가 발발하는 경향, 정치 일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

2020 아프리카 주요 선거 일정

국가	선거종류	시기	국가	선거종류	시기
부르키나파소	대선/총선	11월	코트디부아르	대선	10월
부룬디	대선	5월	모리셔스	총선	1월
	총선/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미정
코모로	총선	1월	토고	대선	4월
에티오피아	총선	5월	나미비아	지방선거	11월
가봉	국회의원	연말	탄자니아	대선/총선	10월
가나	대선/총선	12월	세이셸	대선	연말

자료 : EISA : Elector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mocracy in Africa

阿 각국 정부들은 정치·사회 안정화 노력을 경주 중

- (수단) 2019년 4월 30년 독재를 이어온 바시르 대통령이 쿠데타에 의해 축출, 9월 과도정부 내각이 출범하고 반군단체 대표들과 평화협상 로드맵 합의
  - 주요 분쟁지역의 평화 정착은 美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 중 하나로, 성공적인 과도정부 운영 시 수단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아프리카 연합(AU)은 정국 안정화 노력을 인정, 수단의 회원국 자격을 복권
-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남아공 등은 쿠데타 및 소요사태 등 발생 이후 정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다양한 국가 개혁을 시행 중
  -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 취임 이후 적극적인 경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에티오피아 항공사 등 국영기업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
  -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의 37년 독재 이후 음난가그와 대통령이 이끄는 신 정부 출범, 화폐 개혁을 통해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장기간의 경제 개입 실패로 악화한 경제 부흥 노력 지속
  - (남아공) 높은 실업률과 경제 저성장에 기인, 2019년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요사태가 발생했으나, 정부 주도의 진압 노력으로 진정 국면 돌입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아프리카도 민주적인 선거로 정치지도자가 선출되고 있으며, 여야 간 화해 분위기로 정치적인 안정세를 찾아가는 추세
※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선거 이후 정세 변화 및 사회적 불안 요소 모니터링 필요
※ 안정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 각국 정부는 경제, 산업 부양 정책 추진 중

가. 정치 환경

새로운 정부 출범 및 여야 평화협정 등 정치적인 안정세를 찾아가는 아프리카

○ (남아공) 2019년 신행정부 출범… 7대 중점과제 집중 추진 발표
- 2019년 5월 진행된 제6대 총선에서 ANC(African National Congress)가 57.5%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승리, 당 대표 시릴 라마포사가 대통령으로 선출
- 7대 중점과제로 ▲경제 변혁과 고용 창출, ▲교육, 기술, 보건 ▲양질의 기초 서비스 통한 사회 임금 강화, ▲공간 통합, 거주지, 지역 정부, ▲사회통합과 안전한 지역사회, ▲역량 있고 도덕적인 개발 국가, ▲더 나은 아프리카와 세상 제시
- 특히, 국가개발계획(NDP : National Development Plan) 목표 기한인 2030년을 10년 앞두고 국영기업 쇄신, 일자리 창출, 사업환경 개선 등을 강조

○ (나이지리아) 부하리 대통령 연임 성공, 향후 4년간 안정적인 정국 운영 가능
- 2019년 2월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무함마드 부하리 대통령(APC 소속)이 경쟁자인 PDP 소속의 아티쿠 아부바카르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2023년까지 4년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5년 집권하면서 제시하였던 '경제회복 및 성장계획'(ERGP)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열악한 인프라 개발 확충, 외국인 투자유치 등 수렁에 빠진 나이지리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수단) 경제 위기로 30년 독재정권 축출, 2019년 9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 지속된 경제 위기로 2018년 12월 반정부 시위 발발 후, 국가 비상사태, 쿠데타 및 군과도위 장악, 민정 이양 요구 시위 진압과정 대량 유혈사태 등 정국 불안 심화
- AU, 서방 등 지원 하에 향후 39개월간 민군 합동 과도정부 운영안 최종 합의(8월), 일부에서는 '阿 민주항쟁 모범사례', '새 시대 서막'으로 평가

○ (모잠비크) 여·야 평화협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 불안 가능성은 상존

- 모잠비크 집권 여당과 야당 반군세력은 2019년 8월 마푸투에서 평화협정 체결, 10월 선거(대선, 총선, 주지사)에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
- 다만, 10월 선거 결과를 전후로 집권 여당(Frelimo)과 제1 야당(Renamo) 간 힘겨루기 및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 경우, 정정 불안이 다시 재현될 우려

전반적인 정치·사회적인 안정세이지만 선거를 전후한 불안 요소 상존

○ (케냐) 정치 안정세 유지 중 2022년 총선을 겨냥한 이해 관계 대립 시작

- 2018년 3월에 여야의 극적 화해로 정치적 안정세로 급전환되어 2022년 총선까지는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수상제도 도입 헌법 개정 조짐, 선거구 조정 및 유권자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인구조사 시행(10년만) 등 총선 겨냥 이해 관계 대립이 싹트는 분위기
- 한편, 1월 나이로비 중심지에 알샤바브에 26명이 사망한 무장 테러가 발생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 안보,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집중 투자

○ (코트디부아르) 2020년 대선 레이스 본격화에 따른 불안 요소

- 과거 대선 후 초래된 내전*으로 2020년 대선 여파에 관심, 와타라 現 대통령 3선 도전 입장 발표 보류, 야당 후보들의 출마 결정에 향후 정치 지형 변화 예상
  * 과거 '00년, '10년 대선 이후 쿠데타 등 정치 불안, 내전 확대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정체
- 대선 전, 일부 기업가들이 당분간 투자 등 비즈니스 규모를 축소한 채 관망할 가능성이 대두되어 현실화될 경우 2020년 경기전망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

○ (가나) 2020년 총대선 앞두고 여야 간 대립 구도 지속

- 여당 정권 연임을 위해 6개 주 신설, 지자체장 직선제 위한 헌법 개정 추진, 재외선거 실시 준비 등 개혁 정책 박차, 야당에서는 2월 경선에서 승리한 존 마하마 전 대통령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대선 준비 행보
- 1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관련 범죄 법안까지 서명되었던바, 선거철에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

○ (탄자니아) 안정적 정치 환경 속 2020년 10월 대선 및 총선 예정

- 대통령, 국회의원(약 264석), 시장(Ward Council, 약 4,000개) 등 선거 예정

– 현 마구풀리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 예상, 그동안 탄자니아 대통령의 5년 연임(총10년)의 관행, 특별한 대권 주자가 아직까지 없는 점, 그리고 현 집권 여당의 장악력을 감안할 때 연임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IHS, EIU)

각국 정부는 민심을 잡기 위한 경제, 산업 부양정책 제시

○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일자리 서밋 및 투자 서밋을 개최하는 등 고용 창출, 투자유치 위해 노력 지속

경기부양책(Reform Package)

◎ △사업 및 관광 비자 간소화(비자면제국 확대, 미성년자 출입국 규제완화, E-Visa, 고숙련자 요건 개선) △광업헌장 수정본 발표 및 광물석유자원 개발 개정안(수출 시 사전허가) 철회 △중소기업 조달 확대 및 가금류 등 민감품목 수입 제한 △기업 비용감소 검토(전기, 항만, 철도 관련 비용), 고주파 라디오 활용 데이터 비용 경감 등이 포함
- 제조업, 광업, 산업 인프라, 생활 인프라 등을 중점으로 4,000억 랜드 인프라 기금을 조성, 운용
- 2018/2019년 예산 중 500억 랜드를 취약계층 지원에 재분배하여 농촌, 여성, 청년, 보건, 교육 분야 등에 집행

일자리 서밋(Jobs Summit)

◎ 라마포사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연 27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주요 부문의 고용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 향후 5년간 1,000억 랜드를 투자하여 산업 부문의 흑인 사업가들을 지원
- 정부의 현지 조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2019년 500개 기업 간 회의 개최 합의
-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유지를 제공(7,400헥타르)하며, 관련 프로젝트 개발(48개) 추진
- 지역 대학들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 대상으로 자동차 산업, 건설, 관광 부문의 기술교육 강화 등

○ (케냐)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인 'Vision 2030'의 3단계 사업('18~'22년)을 가속하고, 경제개발 핵심역량을 우후루 BIG4 아젠다 추진에 집중

Vision 2030의 3차 단계사업(Medium Term Plan 3)

◎ 2단계 사업(2013~2017년)까지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2018~2022년)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시행될 예정

Vision 2030의 3단계 사업 달성 목표

(단위 : %)

	실질 GDP 성장률	GDP 대비 투자 비중	GDP 대비 국내 저축률	GDP 대비 수출규모	GDP 대비 수입규모	GDP 대비 공공 부채율
2018	5.9	24.4	18.3	19.2	31.5	47.3
2022	10.0	27.2	24.6	29.0	33.9	49.1

- 석유·가스 및 광물 자원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협력 강화, 해안 지역 통합 관리, 바다 생태계 보호 및 규제, 어업항구 개발 등의 계획 수립
- 물과 위생, 식품 안전, 고용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며, 정부 개혁도 강화

우후루 BIG4

◎ 2017년 11월 새로 출범한 케냐 우후루 정권(집권 2기)이 제시한 핵심 경제개발 계획으로 5년간(2018~2022년) 제조업 활성화, 안정적 식량 공급, 보건의료 향상, 서민주택 보급 확대의 4대 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 및 활성화하여, 경제를 살리고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구한다는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 현지 제조능력 확장 및 제조 분야 일자리 창출, 안정적 식량 확보 및 국민 영양 증대, 전 국민 의료보장 혜택 확대,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 확대가 목표
-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 청년실업 문제 해소 기대

○ (에티오피아) GTP II(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6~'20년)의 역점 추진, 2025년까지 중진국 진입을 위한 4대 목표 및 9대 전략을 설정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주요 목표) △연 경제성장률 11% 유지 △농축산업, 제조 분야 기술, 품질 향상 △전 국민의 GTPII 동참 노력 강화 △민주적 개발도상국 위상 강화

◎ (추진전략) △기존의 성장, 개발추세 유지 △인적자원 양성 교육, 보건 향상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 △투명한 정부구현, 국민동참 유도 △중소기업, 제조업 육성 강화 △여성, 청소년 사회적 권리 강화 △국내 건설기업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개발추구, 환경보호 강화 △도시 개발 가속화
- '중소기업 및 제조업 육성 강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을 위해 섬유·의류, 가공식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 △산업단지 개발 △세관 및 물류 시스템 개선 △세금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산업 인프라 확충 등도 적극 추진

○ (탄자니아)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추진 중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산업화로 경제체질 개선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제조업 육성 및 산업화를 통한 경제 구조 개선 의지 피력

○ (수단) 남수단 독립,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 수출의존도 완화와 경제개발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2019년)을 시행
- 제조업 육성, 농축산업 수출 산업화, 금 등 광물산업 육성을 골자로 제시

AU와 AfDB도 아프리카 대륙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선포

○ (AU) 7대 목표를 설립하여 정치적 통합, 민주주의 확립, 치안 강화, 성 평등 확립,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등을 추진
- First 10-Year Implementation Plan을 제시하여 2014~2023년간 중점 추진할 7대 목표별 우선 추진사항을 명시

○ (AfDB) 기존 10개년 개발전략(2013~2022년)을 한층 확장하여 5개의 새로운 중점 발전 목표(The High 5s)를 발표
- Agenda 2063에서도 중요한 우선순위로 강조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fDB의 지원이 집중될 분야

AU 7대 목표	AfDB 5대 목표
•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 범아프리카(Pan-Africanism) 주의 • 민주주의, 정의구현 실현 • 평화와 안전 • 문화 공동체 • 여성과 청년, 아동 복지 • 국제사회 내 연합 확대	• 아프리카 전력 공급(Light up and Power Africa) • 아프리카 식량 보급(Feed Africa) • 아프리카 산업화(Industrialize Africa) • 아프리카 역내 통합(Integrate Africa) • 아프리카인의 삶의 질 향상(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of Africa)

자료 : AU, AfDB

나. 경제 환경

(대외) 美-中 간 무역분쟁,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 대외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 美 달러 가치 상승, 국제유가 불안정 등은 자원의존적이고 외채의존도 또한 높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 또한, 밀접한 외교, 통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및 유럽권 국가들의 성장 부진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및 투자 감소로 연계

(대내) 자원의존 국가와 비자원집약적 국가 경제성장률 편차 확대

○ (자원국) 대표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원유생산량은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을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

*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 및 외부 회계 조정을 완료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 불확실성 해결(물가 안정, 사업 환경 개선)에 집중

– (나이지리아) 유가 하락, 복수 환율 및 외환 제한, 높은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석유 생산량 및 비석유 부문이 회복세 예상

– (남아공) SSA 전체 GDP의 23%를 차지하는 남아공 경제는 높은 실업률, 환율 불안정, 정부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1%대의 저성장세 지속 전망

– 반면 중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 국가들은 원유 생산량 증가 및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상대적인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비자원국) 전체 국가의 절반인 비자원집약적 국가들은 평균 6.3%의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1인당 소득 증가율 역시 세계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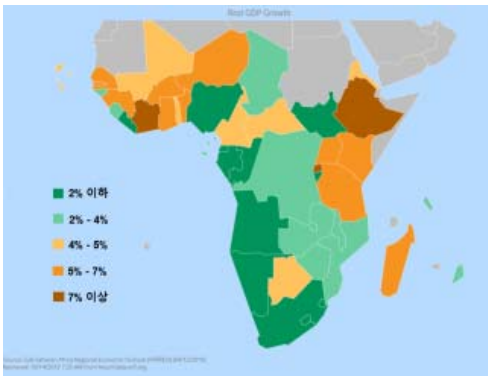
* 동 국가들의 현재까지 높은 성장률은 공공투자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공공부채 증가 문제로 인해 성장의 주축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기고 대안적 접근법 모색

– (에티오피아) 정치적인 안정성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한 개혁 성공 시 고속 성장(7.7% 성장)을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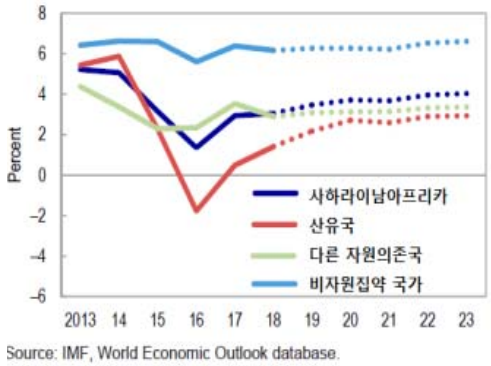
– (세네갈/코트디부아르) 공격적인 공공투자 및 민간 소비 증가로 5%대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 예상

– (케냐/탄자니아)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케냐 5.1%, 탄자니아 7.1%)

국가별 GDP 성장률 비교



자원국·비자원국 경제성장 전망



자료 : IMF(2019년 10월 기준)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 일방적 특혜관세 혜택 수혜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을 통해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및 쿼터 면제

– 아프리카 38개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면제 프로그램으로, 2000년 제정되어 2016년 미국 의회를 거쳐 2025년까지 연장

* 남아공은 AGOA를 통해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규모 '01년 2억 9,000만 달러 ⇨ '14년 14억 달러 기록, 랜드화 약세로 더 높은 이윤 창출

○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및 경제파트너십협정(EPA) 교섭

– 최빈개도국, 저소득국 등 분류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 최근 EU의 대(對)아프리카 전략이 일방적인 원조 정책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촉구하는 정책으로 변화 중

아프리카 내의 다양한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AfCFTA 체결

○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등에 공동 대응하고자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

– 무역장벽 제거 및 역내교역 활성화를 통한 공동 성장 모색이 주목적

– 권역별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5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2개 이상의 공동체에 가입

○ 그 간, 국가별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공동체의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출범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 도래

아프리카 지역별 경제공동체 현황

경제공동체	지역	가입국가	비고
IGAD (7개국)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지부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케냐, 우간다	• 공동 가뭄 대응, 개발 협력 • 무역, 투자, 금융 분야 협력 확대
AMU (5개국) Arab Maghreb Union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 • 아랍어권 • 모로코-알제리 간 갈등으로 실효성 의문
SADC (16개국)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DR콩고,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공,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 경제개발(FEZ 구성) • 역내 관세 85% 철폐 • 지역통합, 빈곤퇴치
ECOWAS (15개국)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토고,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 • 불어, 포어권
COMESA (21개국)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부룬디, 코모로, DR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수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리비아, 소말리아, 튀니지	• 역내 경제 통합 • FTA, 관세동맹, 단일통화, 공동시장 단계적 추진
CEN-SAD (24개국)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부르키나파소, 차드, 리비아, 말리, 니제르, 수단, 가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지부티, 감비아, 세네갈,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튀니지, 토고, 기니비사우, 베냉, 시에라리온, 코모로, 모리타니, 코트디부아르	•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 • Sahel 지역 가뭄 공동대응 • 가입국 대부분이 타 공동체 가입, 실효성 의문
EAC (6개국) East African Community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남수단	• 정치·경제 동맹 • 단일통화 • 동아프리카 정치연방 설립
ECCAS (11개국)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앙골라, 부룬디,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적도기니, 가봉, 상투메프린시페, 르완다, 콩고	•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 • 불어, 포어, 서어권 • 6개국 관세동맹(CEMAC)

자료 : UNCTAD, AU

다. 산업 환경

(소비재) 아프리카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지속 확대

- (시장 수요)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7.5% 성장 예상
  - 가계소비 규모는 2018년 4,946억 달러에서 2021년 6,138억 달러로 성장 전망(BMI)
- (시장 역량) 젊은 층과 신흥 중산층이 소비시장 확대를 주도,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은 소비 패턴 변화를 야기
  - 아프리카의 젊은 소비층은 SNS의 확산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
  - 블랙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아프리카 신흥 중산층은 무조건적인 저가 상품 구매가 아닌 브랜드, 품질, 유행을 고려한 합리적 구매를 선호
  - 극심한 빈부격차로 저소득층(BOP) 시장도 전체 소비층의 30%를 차지
- (주요국)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가 아프리카 3대 소비재 시장
  -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 인구 보유 및 경제 대국으로, 온·오프라인 유통망이 발전되어 있으며, 유아용품, 헤어용품, 가공식품, 화장품 등이 유망
  - (남아공) 선진 유통시장이 형성돼있고 수요가 다양해 글로벌 기업의 진출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급 소비재, 가공식품, 화장품, 문구 등이 유망
  - (케냐)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바탕으로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가공식품, 패션·의류, 미용제품, 건강보조식품, 전자제품 등이 유망

(제조업) 산업다각화, 생산능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 (시장 수요) 아프리카 각국은 자원의존형 경제성장 한계에서 탈피하고자,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현대화 추진 지속
- (시장 역량) 아프리카 내 많은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도입, 현지 생산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추진 중
  - 산업단지 조성, 투자 시 세제 감면 등이 제조업 육성의 주요 수단
  - 만성적인 재원 및 기술 부족이 아프리카의 제조업 육성 저해
- (주요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케냐의 제조업 관련 수요가 높은 편
  - (남아공) 제조업이 GDP의 13% 기여하지만 기술인력이 부족해 경공업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수준이며, 육성정책 일환으로 특별경제구역 등 운영
  - (에티오피아) 경제개발계획으로 제조업 육성 활발하고, 대규모 산업단지, 저렴한 인건비 등 이점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에 주력
  - (케냐) 피혁, 섬유, 철강, IT 관련 품목 조립 분야에 집중

(인프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프라 건설 시장 보유

○ (시장 수요) 건설, 엔지니어링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수요 지속

– 2017년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816억 달러로, 시장 규모는 2019~2023년간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BMI)

○ (시장 역량)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은 2010년 이후 최대 규모 기록 전망

– 각국 정부와 다자개발은행의 투자 확대는 阿 인프라 시장 활성화에 기여

* '17년 정부와 MDB 투자액은 각각 344억 달러(+12.1%), 127억 달러(+35.3%)

– 분야별로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개발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

○ (주요국) 2018~2019년 물류 및 에너지 관련 대형 프로젝트 추진 중

–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유치에 집중 발표

– (에티오피아) Ababa Bole International Airport 완공

– (우간다) Ayago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총 전력 생산량을 1,700MW까지 확대해 아프리카 최대 수력 발전 국가로 발돋움

(에너지) 최근 유가 상승 및 미탐사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회복세 가시화

○ (시장 수요) 열악한 전력 인프라로 전기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잠재력도 높은 시장

– 중국, 미국, 일본 등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진출에 적극적

○ (시장 역량)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의 보고이나, 상업화 개발기술 등 현지 산업 기반은 부재

– 2017년 기준 SSA 지역은 전체 아프리카 원유 매장량의 50.1%(636억 배럴),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의 45.6%(6.3m^3)를 보유, 미탐사 지역이 많아 향후 개발 가능성 또한 높은 편

○ (주요국) △원유는 나이지리아, 수단, △천연가스는 모잠비크, △재생에너지는 남아공,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가 주요 국가로 꼽힘

– (모잠비크) 북동부 해상지역(Rovuma Basin)에서 발견된 금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에서 2022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2046년까지 25년간 총 16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세계은행)

– (남아공) 2011년 150MW 미만이었던 재생에너지 용량이 2018년 5.5GW로 증가

– (수단) 최근 남수단 정부–반군 간 평화협정 체결로 원유 생산 재개, 현재 생산량은 13만 배럴/일로 연말까지 21만 배럴로 증대될 전망

– (코트디부아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 34%까지 증대 계획

(ICT) 아프리카 모바일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온라인 전문 유통망 및 대형 유통기업의 온라인 진출도 증가

○ (시장 수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현지 온라인 유통망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 확대

–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성장, 케냐의 M-Pesa가 아프리카 여러 개국에 걸쳐 대표적으로 사용

– 阿 국가들,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 도입 확대 의지도 확고

○ (시장 역량) 인프라 낙후로 인한 유선통신의 한계를 무선통신 보급으로 극복, 통신 인프라 확충에 따라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률 급증 추세

– (인터넷) 2020년 아프리카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7억 명 이상으로 예상

– (스마트폰) 2017년 34%에서 2025년 67%까지 성장할 전망

– (온라인 유통망) 2018년 5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

○ (주요국) 동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앞선 모바일 금융시장 형성

– (케냐) 모바일 뱅킹 세계 선도국으로 결제, 송금뿐 아니라 주식투자, 광고,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파생

– (탄자니아) GDP 47%가 모바일로 거래되는 등 금융서비스 수요를 모바일로 충족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높일 가공기술 도입 필요성 증대

○ (시장 수요) 빠른 도시화 및 인구증가는 꾸준한 식품 수요 증가를 야기

– 아프리카의 식품 수입 규모는 2015년 350억 달러에서 2025년 1,1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성 향상이 시급

* AfDB는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혁신 아젠다 추진을 위해 '25년까지 농업 부문 투자를 연평균 24억 달러로 증액할 계획

○ (시장 역량) 낙후한 농업시설과 기술 개선을 위한 현대화 전략 수립 필요

* 낮은 기계화, 비료, 농약 및 사료 미사용, 높은 천수 농지 비중(94%)으로 농업 생산성이 세계 평균의 56%에 불과(FAO, '16년 기준)

– 농업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물가상승률, 고용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 및 부가가치 제고가 필수

○ (주요국) 수단, 에티오피아, 가나는 농업이 GDP 20% 이상 차지

– (수단) 농업이 GDP 31%, 수출 25% 차지하며, 시설이 열악해 생산성은 0.3톤/ha로 낮지만, 지리적 이점으로 중동권으로부터의 농업 투자 꾸준

–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제기구의 투자가 활발하고 교육 및 기술 발전에 주력

– (가나) 농업 상업화, 현대화, 과학기술 접목 등 발전에 정부가 적극 지원

(의료) 소득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시장 관심 확대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예상

○ (시장 수요) 세계 전체 시장 대비 작지만 꾸준한 성장세, 경제회복 및 중산층 증가로 의료 부문의 수입 확대 또한 기대

– 2018~2023년간 SSA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0.6%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BMI)

–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SSA 현지 생산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2019년 의약품 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시장 역량) 阿 각국 정부는 보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보급 확대를 추진

– 단, 전반적인 보건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편

– 또한,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대부분 소모품 정도에 불과, SSA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 (주요국) 수요 증가와 정부의 의료부문 지출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성장세

– (남아공) SSA 최대 의료시장 보유하고 있으며, 고도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전문 인력 및 인프라 부족

– (가나) 의료기기를 수입에 의존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며, 2016년 이래로 2028년까지 각종 의료 프로젝트 수주 계획

–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동체 15개국 의료기기·의약품 조달시장 관문으로써 MSD(탄자니아 의료조달청)을 통해서만 조달 가능

(방산·보안) 빈부격차 및 내전, 테러 위협 등 정세 불안은 치안 불안으로 이어져 방산·보안 수요 꾸준

○ (시장 수요) 수요는 꾸준히 높은 편이지만 자체 제조업 부재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고 외국기업에 대한 조달장벽은 낮음

○ (시장 역량) 2018년 기준 SSA는 193억 달러의 방산 시장 형성

– 방산·보안 제품은 경찰, 군인 등 사용인력의 생명과 직접 관련됨에 따라, 가격보다는 품질에 우선한 구매 경향 보유

–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 및 보안에 대한 수요도 확대 추세

○ (주요국) 남아공 및 앙골라(케냐 무역관 관할지)의 군사비 지출이 높은 편

- (남아공) SSA에서 많은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 관련 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요가 지속되고 범죄율이 높아 개인 보안장비 수요도 큰 편
- (케냐) 자국 내 방산 제조 기반이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

라. 정책·규제 환경

정부 주도의 국가개발계획 계획을 통한 산업화 노력 강화

○ 정부 주도의 제조업 기반 확충, 산업 다각화, 인프라 개발, 소비시장 육성 등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한 정책 노력 확대

- (남아공)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장기적 국가개발계획(NDP : National Development Plan 2030)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정책행동계획(IPAP : Industrial Policy Action Plan)을 발표해 경기 활성화 도모
- (케냐) Big4 Agenda를 통해 5년간('18년-'22년) 제조업 활성화, 안정적 식량 공급, 보건의료 향상, 서민주택 보급 확대의 4대 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 및 활성화하여 경제를 살리고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추구
- (수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5년-'19년)을 시행하여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광물, 농축산 자원의 수출 산업화,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
-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TDV2025)으로 중소득국으로의 도약에 힘쓰고, Big Result Now(BRN) 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농업, 교육, 에너지, 의료 등 8개 분야를 개발하며 관련 집중 사업 선정
- (나이지리아) 경제회복 및 성장 계획(ERGP) 통해 인프라 개선, 식량 안보, 중소기업 주도의 공업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1,500만 개)을 도모하고, 2020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 7% 성장을 위해 노력
- (에티오피아) 제2차 경제개발 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 '16~'20년)을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 중진국 진입 도모
- (가나) 1구역 1공장(1D1F) 프로젝트로 216개 지역 공장 설립 추진
- (코트디부아르) 제2차 국가개발 계획(PND, '16~'20년)을 시행하며, 교통, 석유에너지, 동물 수산자원, 관광, 도시건축 프로젝트 등 우선 개발 분야 집중
- (모잠비크) 2025년까지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Agenda 2025' 추진

기타 주요국의 정책·규제 환경

○ 남아공

-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 위해 8개의 특별경제지구(SEZ) 운영

– 자동차 수출 증대 및 자국 내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산업육성계획(APDP :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 시행

– 흑인계층의 경제력 향상 위해 포괄적 흑인경제육성법(B-BBEE) 적용 중

– 공공조달 우대정책(Preferential Procurement Regulations) 개정안이 발효되며, 현지 생산 능력 확대 강조

ㅇ 케냐

– 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신규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관리법(Financial Bill 2018) 시행으로 △자동차용 가솔린에 8%의 VAT 신규 부과 △등유 과세 △설탕 및 과자류에 대해 1kg당 20실링 부과 △주택개발공사기금을 위한 1.5%의 세금 부과 △모바일 금융거래서비스 12% 과세,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15% 과세 등 2019년 물가 상승 및 투자위축 우려

ㅇ 수단

– 美 제재 여파, 저유가에 따른 수출 감소와 외화 부족으로 L/C 개설도 중앙은행에서 관여하고 외화 반입 시 공항 내 신고를 의무화하며 개인 해외반출 외화 금액도 1만 유로로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외환 통제 중

– 美 경제제재 해제에도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 송금이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두바이 등 제3국 결제를 통한 수입금지 조치도 강화한 상태

ㅇ 탄자니아

– 마구풀리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Hapa kazi Tu'를 통해 정부 서비스 개선, 기존 부처 통폐합,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공공개혁 진행

– 열악한 세수 기반 극복을 위해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수 확대를 도모

– 광산 사용료 인상, 무상이익 공유율 16%로 확대 및 증권거래소 상장 의무화

ㅇ 나이지리아

–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가구류, 가금류, 섬유류, 주방용품 및 사치품 등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쌀, 고기류, 컴퓨터, 고급 차량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외환배정을 금지하는 간접규제도 시행

ㅇ 에티오피아

– '중소기업 및 제조업 육성 강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을 위해 섬유·의류, 가공식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 21개국과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 미국, 이탈리아, 쿠웨이트 등 16개국과는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 코트디부아르

– 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발전, 고용 창출 도모

– 외국인 투자 장려를 위해 투자 관세 40% 감소, 투자 지역에 따라 영업수익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등 관세 혜택 제공

○ 가나

– 외국인 투자자 보증 확대, 외국인 자유영업 개시 가능화 등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2013년 투자 진흥법 개정, 서아프리카 투자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 노력

2 시장 분석

※ 아프리카는 풍부한 인구(노동력 및 소비자) 및 천연자원을 보유한 잠재력 높은 시장
※ 최대 개발 원조 수요처인 동시에 미래 시장을 선점코자 하는 기업들의 유망 투자처
※ 아프리카의 복잡·다양성을 잘 이해하고 정책·규제에 유의한다면 수출·투자·프로젝트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대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에 따라 젊은 층의 노동력 공급 및 소비 증가 기대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대륙으로 새로운 시장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 확대

– 2019년 11억 명인 SSA 인구는 2050년까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UN)

– 25세 미만 인구 비중이 62%이고, 중위연령 21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

○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며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또한 지속 성장

– 가계소득 10,000달러 이상의 중산층은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1,230만 가구로 증가 예상(Euromonitor)

– 전체 가구의 65% 이상이 연 소득 5,000달러 이상의 소비층으로 분류되고, 개인 소비액은 2025년 2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McKinsey)

기술의 점진적 발전이 아닌 도약적 발전으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신산업 출현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으로 기존 단계를 뛰어넘는 혁신이*(Leap Frogging) 확산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 중

* 르완다에서 드론 배송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 시장

**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45개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세계은행)

기존의 원조대상국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새로운 자리매김

○ 과거 전통적 협력국인 유럽, 미국, 중국 중심에서 탈피 신흥국들과 교류 확대

* 30년 전 브라질, 인도, 중동과의 교역량 비중이 1%에서 현재 20% 이상으로 확대

○ 세계는 아프리카를 더는 가난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위기의 대륙'이 아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

* '14년부터 대(對)SSA 해외 직접투자금액(416억 달러)이 해외 원조액(406억 달러) 추월

54개 국가, 2,000여 개의 언어 등으로 구성된 복잡·다양한 대륙

○ 미국, 중국, 인도, 서유럽, 멕시코 면적 총합보다 큰 거대한 대륙으로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20%에 해당

– 동쪽으로는 인도양, 서쪽으로는 대서양,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위치하며, 열대 기후, 건조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공존

○ 아프리카 대륙은 54개 독립 국가로 구성되어(SSA 49개국), 자원, 경제 규모, 산업 구조, 역사유산, 종교 등이 모두 제각각 상이

– 나이지리아의 GDP 규모는 5,380억 달러임에 반해, 감비아는 9억 달러에 불과, 단일 경제 규모를 형성하기도 어려운 수준

– 과거 식민지, 역사적 기반에 따라 영어, 불어, 포어, 스와힐리어 등 통용되는 언어만 2,000여 개에 달하며, 그만큼의 종족이 살고 있어 상관습도 다양

아프리카 면적 규모

아프리카 언어지도

자료 : The Economist, Wikipedia, World Maps

○ 국가별 소득 규모도 상이한데,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저소득국으로 구분

SSA 소득 규모별 국가 분류

저소득국(LIC)	저중소득국(LMC)	고중소득국(UMC)	고소득국(HIC)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DR콩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짐바브웨	앙골라, 카보베르데, 카메룬,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나, 케냐, 레소토,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상투메프린시페, 수단, 잠비아, 에스와티니	보츠와나, 적도기니, 가봉, 모리셔스, 나미비아, 남아공	세이셸

자료 : 세계은행(2019년 10월 기준)

글로벌 기업들의 자원확보를 위한 전략 지역

○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다양한 광물이 매장된 천연자원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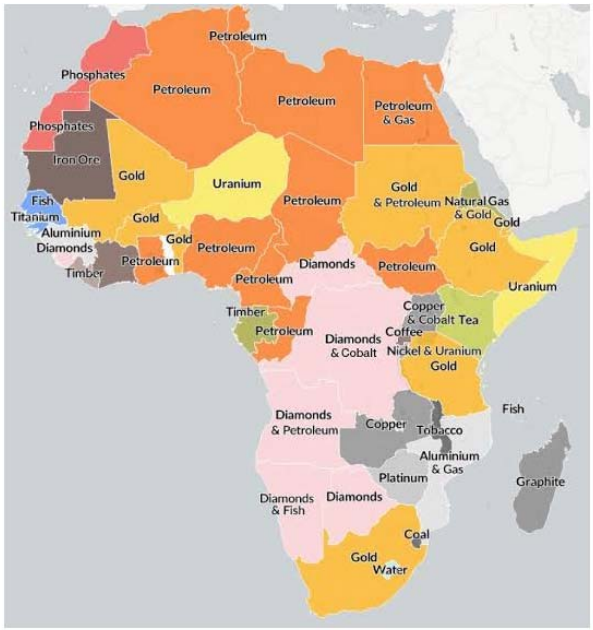
– 전 세계 광물 생산량 중 우라늄광 15.2%, 금 17.8%, 망간괴 44.9%, 크롬광 50.5%, 다이아몬드 52.8%, 코발트 53.2%, 백금 73.2% 등을 점유

○ 아프리카의 총 원유와 콘덴세이트 생산량은 2023년 일일 5,500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탐사 지역이 많아 향후 개발 가능성 또한 높은 편

–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에서 일일 362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아프리카의 유전 개발이 원유 생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SSA 국가들은 연간 732억m^3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예측(BMI)되며, 특히, 모잠비크에서 금세기 최대 가스전이 발견되어 주요 가스 생산국으로 부상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천연자원 분포도



차(tea) 목재(timber) 티타늄(titanium) 담배(tobacco) 우라늄(uranium) 수자원(water)
흑연(graphite) 철광석(iron ore) 천연가스(natural gas) 니켈(nickel) 원유(petroleum) 인산염(phosphates)
백금(platinum) 석회암(pozzolana)
알루미늄(aluminium) 석탄(coal) 카카오(cocoa beans) 커피(coffee) 구리(copper) 면화(cotton)
다이아몬드(diamonds) 어족자원(fish) 금(gold)

자료 : Al Jazeera

주요 광물 자원의 연간 생산량 및 확인 매장량

광물	생산량 순위	국가명	연간생산량		확인매장량
			2017	2018	
크롬광 (천 톤)	1	남아공	16,500	16,000	200,000
	2	터키	6,500	6,500	26,000
	3	카자흐스탄	4,580	4,600	230,000
	4	미국	3,500	3,500	100,000
	전 세계 총량		35,700	36,000	560,000
백금 (kg)	1	남아공	143,000	110,000	63,000,000
	2	러시아	21,800	21,000	3,900,000
	3	짐바브웨	14,000	14,000	1,200,000
	4	캐나다	9,500	9,500	310,000
	5	미국	3,980	4,100	900,000
	전 세계 총량		199,000	160,000	69,000,000
흑연 (톤)	1	중국	625,000	630,000	73,000,000
	2	브라질	90,000	95,000	72,000,000
	3	캐나다	40,000	40,000	-
	4	인도	35,000	35,000	8,000,000
	5	모잠비크	300	20,000	17,000,000
	전 세계 총량		897,000	930,000	300,000,000
공업용 다이아몬드 (백만 캐럿)	1	러시아	19	19	650
	2	오스트레일리아	17	17	120
	3	DR콩고	15	15	150
	4	보츠와나	7	7	90
	5	남아공	2	2	70
	전 세계 총량		63	63	1,200
망간 (천 톤)	1	남아공	5,400	5,500	230,000
	2	오스트레일리아	2,820	3,100	99,000
	3	가봉	2,190	2,300	65,000
	4	중국	1,700	1,800	54,000
	5	브라질	1,160	1,200	110,000
	전 세계 총량		17,300	18,000	760,000
코발트 (톤)	1	DR콩고	73,000	90,000	3,400,000
	2	러시아	5,900	5,900	250,000
	3	쿠바	5,000	4,900	500,000
	4	오스트레일리아	5,030	4,700	1,200,000
	5	필리핀	4,600	4,600	280,000
	전 세계 총량		120,000	140,000	6,900,000

자료: US Geological Survey 2019

나. 교역

2018년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는 다소 심화, 전체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4.1% 증가

- (수출) 2011년 최고치(4,482억 달러) 기록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감소하다가 2017년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라 반등한 이후 증가세 지속
- (수입) 2018년 SSA 수입시장은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되어 4,694억 달러 기록

SSA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478,488	452,289	343,075	316,706	366,192	419,688
수입	509,341	524,740	454,349	386,811	412,704	469,378
규모	987,829	977,029	797,424	703,517	778,896	889,066
규모 증감률(%)	0.8%	-1.1%	-18.4%	-11.8%	10.7%	14.1%
수지	-30,853	-72,451	-111,274	-70,105	-46,512	-49,690

자료 : UNCTAD(2019년 10월 기준)

2018년 SSA에서 수입 규모가 큰 국가는 남아공(1,089억 달러), 나이지리아(715억 달러), 앙골라(259억 달러), 가나(232억 달러), 에티오피아(206억 달러) 순

- 수입규모 상위 3개국 남아공(10.0%▲), 나이지리아(40.7%▲), 가나(4.7%▲)를 포함한 주요국의 수입시장은 전년 대비 성장

2018 SSA 수입규모 상위 1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2017 증감률
남아공	115,602	99,913	89,134	98,930	108,855	10.0%
나이지리아	85,655	74,020	46,960	50,850	71,521	40.7%
앙골라	53,538	37,969	25,657	28,257	25,884	-8.4%
가나	19,247	20,774	20,536	22,123	23,170	4.7%
에티오피아	18,159	19,812	19,909	19,150	20,591	7.5%
케냐	20,279	17,678	16,145	19,086	20,209	5.9%
코트디부아르	12,157	11,346	10,712	11,820	12,415	5.0%
모잠비크	11,609	10,606	7,874	8,212	10,334	25.8%
탄자니아	13,586	12,513	10,695	9,570	10,226	6.9%
잠비아	10,239	8,869	7,932	9,376	10,204	8.8%

자료 : UNCTAD(2019년 10월 기준)

○ 수출규모 상위 10개국 중 탄자니아(-6.6%)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성장세 기록, 특히, 나이지리아(34%▲)와 앙골라(16%▲) 수출시장 급성장

2018 SSA 수출규모 상위 1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2017 증감률
남아공	110,333	95,742	90,650	103,397	110,155	6.5%
나이지리아	83,830	50,378	38,413	50,764	67,795	33.5%
앙골라	60,851	34,437	28,300	35,598	41,389	16.3%
가나	15,261	16,463	17,470	20,437	22,440	9.8%
코트디부아르	13,167	11,740	10,975	11,981	13,348	11.4%
케냐	11,238	10,610	9,891	10,427	11,589	11.1%
잠비아	10,919	8,072	7,229	8,924	9,838	10.2%
탄자니아	8,590	8,814	9,269	8,748	8,169	-6.6%
에티오피아	6,330	6,001	5,904	6,628	7,622	15.0%
보츠와나	9,472	7,216	8,209	6,936	7,381	6.4%

자료 : UNCTAD(2019년 10월 기준)

아프리카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품목별로는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자기기 등을 주로 수입

○ 중국의 아프리카 수입시장 점유율은 15.6%이며, 전년 대비 수입액 15% 증가

- 프랑스(18%▲), 미국(11%▲), 아랍에미리트(43%▲), 사우디아라비아(29%▲), 러시아(74%▲), 싱가포르(147%)로부터의 수입 급증
- 2018년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수출 역시 전년 대비 49% 증가

2018 아프리카 수입규모 상위 1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2017 증감률
중국	85,453	88,393	77,574	78,734	90,635	15.1%
프랑스	33,020	29,802	27,144	25,840	30,589	18.4%
미국	35,576	28,686	25,321	25,337	28,158	11.1%
독일	31,361	28,428	26,867	27,699	26,029	-6.0%
인도	29,043	24,619	22,425	23,049	25,141	9.1%
남아공	29,544	26,109	22,370	22,731	24,614	8.3%
아랍에미리트	18,848	13,668	11,989	15,884	22,737	43.1%
이탈리아	24,620	21,437	19,348	21,710	22,134	2.0%
스페인	20,473	18,363	17,898	20,312	21,177	4.3%
사우디아라비아	23,037	19,401	13,589	14,291	18,402	28.8%

자료 : Trade Map(북아프리카 5개국 포함, 2019년 10월 기준)

○ 광물성 연료와 기계류 수입이 전체 수입시장의 17%를 차지하며, 상위 10대 품목 중 곡물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성장세 기록

2018 금액 기준 수입 15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HS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8/2017 증감률
27	광물성 연료	461,770	506,161	576,604	13.9%
84	기계류	60,934	72,843	98,211	34.8%
85	전자기기	56,971	58,243	60,953	4.7%
87	자동차	40,077	40,450	44,237	9.4%
10	곡물	35,253	37,329	41,915	12.3%
39	플라스틱	19,919	22,851	22,418	-1.9%
72	철강	17,696	19,307	21,854	13.2%
99	기타	13,418	15,142	16,875	11.4%
30	의료용품	9,102	9,234	16,029	73.6%
73	철강제품	13,814	14,962	15,426	3.1%

자료 : Trade Map(북아프리카 5개국 포함, 2019년 10월 기준)

주요국 수출입 동향

○ (남아공) 2018년 남아공의 대(對)세계 수출입은 각각 전년 대비 5.07%, 11.8% 확대, 총 교역액은 1,8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32% 상승

–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며, 전통적 교역국 외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같은 중동 국가에서의 수입이 늘고 아프리카 역내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

– 보석·귀금속, 광·슬랙·회와 광물성 원료(크롬, 백금족, 철광석 등)의 세계적 수출국이며, 기계류, 전기기기, 차량 및 부품 등을 주로 수입

남아공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6월)
수입	75,102	83,192	93,013	43,468
수출	75,289	89,239	93,762	43,332
무역수지	186	604	749	-136

자료 : WTA(2019년 10월 기준)

○ (케냐) 2018년 총수출은 60억 달러로 2017년 56억 달러와 비교해 7.1% 증가

– 총 수입액은 173억 달러로 2017년 164억 달러와 비교해 5.5% 증가

–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인도, UAE, 일본, 사우디 등이며, '18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6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하락했고, 인도, 사우디, UAE로부터의 수입은 소폭 상승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석유 및 정제유, 팜유와 그 분획물, 의약품, 승용차, 화물자동차, 복합비료, 건설장비 등

케냐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수출	5,663	5,657	6,005	2,976
수입	13,877	16,423	17,295	8,546
수지	-8,214	-10,766	-11,290	-5,570

자료 : WTA(2019년 10월 기준)

○ (탄자니아) 교역규모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 수출은 44억 달러, 수입은 82억 달러를 기록

– 대(對)인도 수출 금액은 감소하는 반면, 남아공 수출은 꾸준하고, 수입은 주로 중국과 인도 위주로 이루어지며 수입품목은 원유가 압도적

– 수출품목은 금, 잎담배, 캐슈너트, 커피, 귀석류(다이아몬드 제외)이며, 국가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도, 남아공, 케냐 등이 거의 50%가량 차지

탄자니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예상)
수출	5,661	4,899	4,379	4,636
수입	8,464	7,552	8,174	8,552
무역수지	-2,802	-2,653	-3,795	-3,915

자료 : EIU(2019년 10월 기준)

주요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 남아공

– 산업통상부는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조달 시 구조용 강재에 대한 자국산 구매 우선 정책을 실시하고 2017년 8월 열연코일(HRC : Hot-rolled coil)에 대한 세이프가드(12%) 발동

– 의료기기 인증 담당기관으로 남아공 보건제품규제관리기관(Sahpra)이 신설되어 의료기기 등록 필수화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기,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시행으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라벨 부착 및 라벨링에 대한 강제 사양 준수 필요

– 각종 전기, 전자제품 및 의약품 등 통관 시 필요한 인증서 발급 지연

○ 케냐

– 에너지효율(EER) 산정 시 T3 조건(실내온도 29℃, 실외온도 46℃로 열대지역 조건)을 요구하나, 케냐 연중 실외 최고온도는 약 25℃로 T1 조건(실내온도 27℃, 실외온도 35℃) 적용 가능해 지나친 시험조건 요구

– 무역관은 공관 및 국가표준원과 협력하여 케냐 표준청과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바 케냐 표준청에서 기술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

○ 수단

– 수단은 아직 WTO 미가입국으로, 수입 시 고율의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복잡하게 부과되는 점을 반영한 가격 정책 필요

– 농기계, 의료기기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수입 관세 면제, 영업세(3%)만 납부

– 자동차의 경우 수입 억제, 자국 산업 보호 명목하에 출고된 지 1년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 물품 포함해서 수입을 전면 금지, 중고 부품 수입은 허용

–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수단 정부는 알코올류, 음란물, 돼지고기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품목의 수입은 엄격히 제한

○ 탄자니아

– 특별한 수입 제한 내역은 없으나 선적전적합성검사(PVoC) 의무 시행 중

– 수입 제품은 선적전적합성검사(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 PVoC)가 필수이므로 인증기관으로부터(Certification of Conformity : CoC) 사전 획득 요망

– (참고) 동아프리카세관관리법(EACCMA)에 따른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

수입 금지품목	수입 제한품목(특별승인 필요)
• 승용차용 중고 타이어 • 음란 영상매체, 인쇄물, 서적 등 • 수은 함유 비누류 또는 화장품류 • 화학제품 함유된 증류주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무기 및 총알류 • 유전자 변형 생산품 • 미가공 귀금속 및 원석

○ 코트디부아르

– 설탕, 밀가루, 자연 상태에서 썩지 않는 비닐봉지는 수입 제한

○ 에티오피아

– 무기류 등 일부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명문화된 장벽은 없음

– 고관세 정책과 HS Code의 자의적인 해석(일부의 경우)이 실질적인 장벽

– 수입세(0~35%), 부가세(VAT), 물품세(Surtax), 인지세(Withholding Tax) 부과

○ 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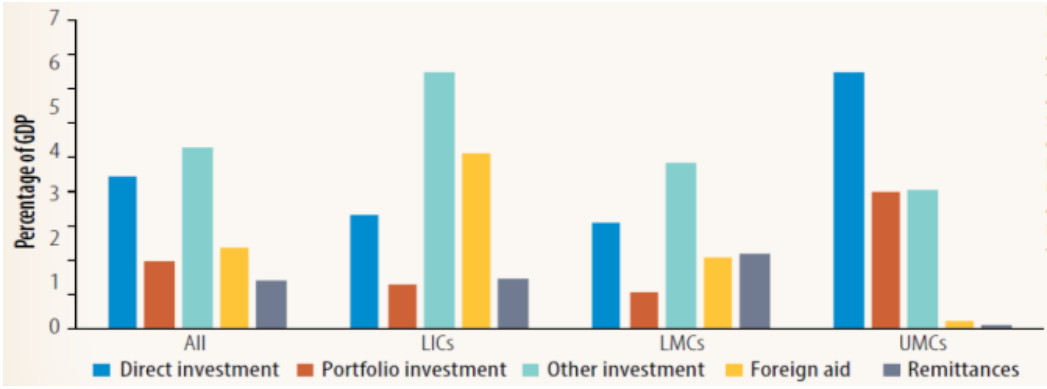
– 국민의 위생 관련 품목으로 중고 매트리스, 중고 의류, 질병 감염 동물, 오염 식품, 미가공 커피, 음란물, 의약품, 무기 수입 등 전면 금지

다. 투자

대(對)SSA 자본유입은 해외 직접투자(FDI) 또는 해외 원조의 형태가 대부분

- 2000~2017년간 대(對)SSA FDI 및 해외 원조는 GDP 대비 평균 3.36%, 3.35%로 달함
  * 해외 원조 규모는 현재 최신 자료가 2017년 기준
- 소득규모별로는 저소득국(LIC)과 저중소득국(LMC)의 경우 기타 투자(해외 차관)의 비율이 높고, 고중소득국(UMC)은 FDI의 비중이 두드러짐

SSA 소득규모별 자본유입 분포



자료 : 세계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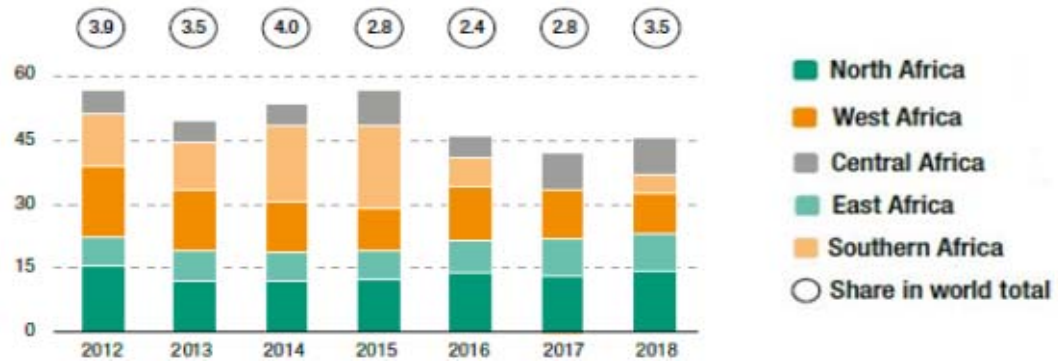
2018년 대(對)SSA FDI 유입 총액은 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

- 2018년 세계 전반적인 FDI 감소세 가운데 아프리카 전체로 유입된 FDI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459억 달러 기록
  - 특히, 남아공 FDI 유입이 전년 대비 165.8% 증가한 5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급격히 감소하던 SSA로의 FDI 유입 증가에 기여
- 권역별로는 서부에서 15% 감소해 2006년 이래 최저치인 96억 달러 기록했고, 동부 및 중부는 전년과 비슷했으며, 남부는 반등세로 전환
- 아프리카의 FDI 증가세에는 AfCFTA 출범 합의와 원자재 가격 및 수요 증가, 비자원국가로의 투자 확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 또한, 아프리카 각국의 특별경제구역 설립 확대 또한 투자유치에 도움
    * SSA 54개국 중 38개국에 총 237개의 특별경제구역 존재, 케냐가 61개를 보유해 독보적으로 많은 편
- UNCTAD는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주요 자원 가격이 상승에 힘입어 2019년 대(對0아프리카 FDI 유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SSA FDI 유입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계	1,425,377	1,338,532	1,921,306	1,867,533	1,429,807	1,297,153
SSA	39,732.9	41,696.7	46,034.3	40,405.7	29,646.6	31,786



자료 : UNCTAD(2019년 10월 기준)

주요국 투자진출 장벽

○ 남아공

– 투자진출 시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 발급이나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EE 조건 충족 필요

* 흑인경제육성법(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 흑백 간의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93년 도입, 소수 인종(흑인, 인도인, 혼혈)의 지배력 확대, 고용 평등 등의 혜택 부여

– 2014년 이민법 개정으로 일반 노동 비자 및 비즈니스 비자 신청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실상 발급이 불가

○ 케냐

– 현지인 고용임금에 비해 노동력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2017년 5월 최저임금이 18% 인상된 것에 이어, 2018년 5월에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5% 인상했으며, 고용세도 0.5% 인상 예정

– 현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자공여국들의 펀딩이나 PPP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금융기법 등이 취약한 우리기업의 참여는 상대적 저조한 편

–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무상원조 지원으로 인해 수주의 어려움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들의 경우 파이낸싱을 통한 투자 및 이미 진출한 국가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수주획득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

○ 코트디부아르

–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주로 요구하는 화물위치추적문서(BSC)를 비롯하여, 최근 도입된 수출선적인증서(COC)에 이르기까지 수출업자들에게 서류 준비작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수단

–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외환을 취급하는 수출입,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단독투자를 불허, 그 외 업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음

– 1999년에 투자법을 제정했으며, 2003, 2007, 2013년에 걸쳐 개정, 지금은 2013 투자촉진법(National Investment Encouragement Act, 2013) 적용 중

– 동 법규는 농업, 축산, 제조, 에너지, 광업, 교통, 관광, 사회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단 투자촉진법은 내외국 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에티오피아

– 정부의 투자 자금 30% 대출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물류 환경, 낮은 생산성이 가장 큰 투자 저해요인

– 한편, 동남아 등 주력 투자진출국의 인건비 상승압박에 대비한 투자진출 여건 및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 필요

○ 탄자니아

– 토지 구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최소 1년에서 최장 4년까지 소요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투자 지연

– 2018년에는 온라인 블로거들에 대한 세금 부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 운영 시 투명한 법적 절차 이행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도 유의 필요

○ 나이지리아

– 경제 성장, 고용 창출, 기술 이전을 위해 석유가스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이 로컬 콘텐츠(현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요구

○ 가나

– 대부분의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35%의 관세가 부과되어 시장 진출이 어려움

– 주택 공실률이 매우 높으나 임대업 대부분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므로 임대업자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며, 주거비용은 외국인 주요 주거지역 Cantonments 스튜디오 룸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200~2,500달러 수준

– 가나인들은 외상거래를 선호하나 외상거래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개 L/C로 거래해야 하지만 거래 불발률이 20%로 현지에서 L/C 거래도 완벽하지 않으며, 특히, 아프리카 은행에서 진행하는 L/C는 전혀 신뢰할 수 없음

○ 모잠비크

– 노동부는 외국인 직원 채용 숫자에 쿼터를 설정하는 법을 실시하고 있고, 고숙련 노동자가 부족해 민간과 공공부문 간 인재 경쟁 치열

라. 프로젝트

시장 규모 및 특징

○ 사하라이남아프리카(SSA) 프로젝트 시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개선과 석유·원자재 가격 반등으로 성장세 회복

– 아프리카 대형 건설 프로젝트 시장(5천만 달러 이상)은 2018년 전년 대비 40.1% 성장한 3,222억 달러 기록

* '14년 $3,136억, '15년 $3,495억, '16년 $2,476억, '17년 $2,301억(SSA 기준)

○ 초대형 프로젝트는 미미하고, 프로젝트 대부분 5천만 달러 미만 규모

– 5천만 달러 이상 건설 프로젝트 중 5억 달러 미만이 70%, 설계 및 파이낸싱 문제로 100억 달러 이상 초대형 프로젝트 진행은 어려움

* $5~10억 13%, $10~50억 13%, $50~100억 1%, $100억 이상 3%(아프리카 전체 기준)

○ 남부는 매년 대형 건설 프로젝트 시장 최대 규모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부는 높은 성장률로 역내 최다 프로젝트 기록

– 금액 기준 점유율은 남부 39%, 동부 27%, 서부 26%, 중부 8%이며, 건수로는 동부 37%, 서부 28%, 남부 27%, 중부 7% 차지

권역별 프로젝트 시장 규모

(단위 : 건, 억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
남부	건수	119	109	85	93	103	27.6
	금액	1,449	1,400	934	897	1,254	38.9
동부	건수	51	61	43	71	139	37.3
	금액	607	575	274	326	871	27.0
서부	건수	66	79	92	79	105	28.2
	금액	748	1,162	1,198	983	828	26.0
중부	건수	13	23	24	20	26	7.0
	금액	332	358	70	95	269	8.3
합계	건수	249	272	244	263	373	100
	금액	3,136	3,495	2,476	2,301	3,222	100

* 자료 : Deloitte, Africa Construction Trend Repor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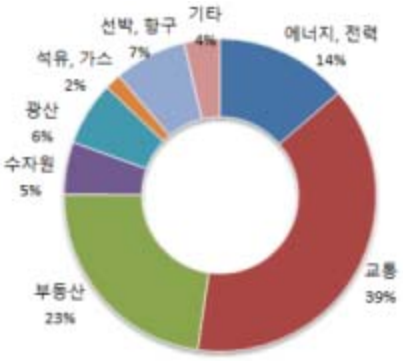
○ 상위 3개국(케냐, 에티오피아, 남아공)이 전체 프로젝트의 31%를 차지하여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큰 편

– 건수 기준으로 케냐와 에티오피아가 동부 프로젝트의 56%, 남아공이 남부 프로젝트의 36%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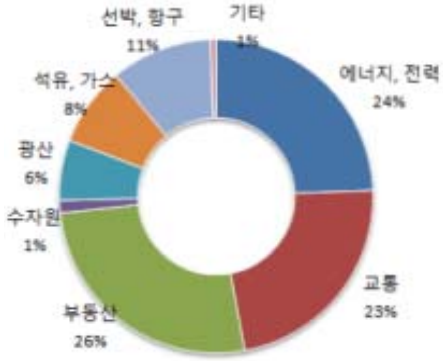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통 인프라가 건수 기준 전체 프로젝트의 38.6% 차지(아프리카 전체 기준)

– 교통 인프라의 72.5%는 도로 및 다리 등 토목 공사로, 현지 정부 및 중국이 주요 재원이며, 다음으로는 부동산(22.8%), 에너지·전력(13.7%), 선박·항구(7.5%), 광산(6.6%), 수자원(6%) 순

부문별 프로젝트 규모(건수)



부문별 프로젝트 규모(금액)



* 자료 : Deloitte, Africa Construction Trend Report 2018

○ 주요 발주자는 현지 정부로, 주요 재원은 현지 정부, DFI(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중국이며, 건설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

– 발주자는 현지 정부(75.5%), 외국기업(15.5%), 현지기업(9.3%) 순으로, 외국기업은 중국(3.3%), 호주(2.5%), 중동(2.5%) 등

– 재원은 현지 정부(118건, 24.5%), 중국(91건, 18.9%), DFI(66건, 13.7%), 현지 민간 기업(51건, 10.6%) 등이 담당

* 현지 정부는 주로 교통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하고, 중국은 교통, 에너지 프로젝트에 집중

– 건설 시장은 중국이 선도(160건, 33.2%)하고, 다음 이탈리아(21건, 4.4%), 프랑스(15건, 3.1%) 순(아프리카 전체 기준)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세계은행도 주요 재원으로, SSA 프로젝트에 관심

– AfDB는 2017년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교통, 에너지, ICT)에 34억 달러를 투자했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통한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 강조

– 세계은행은 2017년,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에 70억 달러 지원 승인했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을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2010~2035년 아프리카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관련 인프라 시장 규모는 2.1조 달러(연간 830억 달러 이상)로 예측(IEA)

– 주요국 선거가 마무리되고 국책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으며,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주거·상업용 건축 수요와 에너지 부문 성장 기대

주요 경쟁국 참여 동향

○ (중국) 지난 7년간 아프리카 인프라에 연 130억 달러(아프리카 전체 기준)를 투자하는 등 대규모 차관을 통해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을 선점

– 최근 3년간 2015년 209억 달러, 2016년 64억 달러, 2017년 194억 달러 투자

– 2000년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신설하고, 대(對)아프리카 3개년 자금지원을 통한 중국 건설기업의 진출 촉진

–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최초 남아공 COIDIC* 사무소 개설, 에너지, 교통, ICT 부문의 PPP 개발과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집중

* 일대일로 프로젝트(One Belt, One Road) : 내륙과 해상의 신실크로드 경제 벨트

* COIDIC : China Overse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

– 2017년 에너지(90억 달러, 46.6%), 교통(34억 달러, 17.5%) 프로젝트 파이낸스 발표하는 등 에너지, 교통 인프라가 주요사업 부문

– 2015년 이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교통 부문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2014년 이후 중단된 수자원 프로젝트 자금 조달 재개

– 연도별로 최대 자금 조달 권역은 2015년 남부(94억 달러, 45%), 동부(68억 달러, 33%), 2016년 서부(23억 달러, 36%), 동부(20억 달러, 32%), 2017년 서부(115억 달러, 59%), 남부(28억 달러, 14%)

○ (일본) 2017년 일본은 대(對)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투자 자금으로 24억 달러 조달을 승인했고, 이 중 400만 달러 지급 완료

– 서구 및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진출이 늦어 일본과 아프리카 외교의 기축인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를 적극 활용

* TICAD :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 2017년 조달된 전체 규모의 82% 자금 대부분은 교통 프로젝트에 집중됐고, 그 외 다른 부문은 물·위생이 17%, 에너지가 1% 차지

○ (미국) 전력과 석유화학 시설 부문에 집중해 산유국 중심으로 진출

– 아프리카 전기 보급률 증가를 목표로 지난 5년간 145억 달러에 이르는 80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시설 수주에도 주력

- 2018년 12월, 'Prosper Africa Initiative'에서 대(對)아프리카 전략의 근간을 '무차별적 원조'에서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항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무역 및 투자'로 전환하는 등 입지 강화를 위해 경쟁국 견제

ㅇ (프랑스) 2017년 프로젝트 투자액 21억 달러,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 유지

- 혼합 펀드(blended fund) 비중이 매우 높으 (2017년 2.72억 달러, 승인액의 18%), 무료 지원액(grant funding)은 0.49억 달러(2%)
- 식민통치 기간 구축한 기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배력 회복 노력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가. 교역

2018년 한국의 대(對)SSA 수출은 선박 수출량 감소로 전년 대비 14.3% 감소(64억 달러)

○ (규모) 대(對)SSA 수출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박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2018년 전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3% 감소

– 그러나 광물성 연료, 전기기기 등 다른 주요 품목들의 수출은 늘어난 편으로, 선박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약 10.3% 증가한 50억 달러 기록

* 2018년 선박 수출은 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9% 감소

○ (국가별) 대(對)탄자니아, 콩고, 세네갈, 모리셔스, 케냐 수출 대폭 증가

– 콩고(1374%↑)와 탄자니아(201%↑)로 기계류 수출량이 증가했고, 대(對)세네갈 선박 수출이 전년(26,170 달러) 대비 급증해 4천만 달러 기록

한국 대(對)SSA 수출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8월)
수출액	7,597.36	8,858.08	7,494.83	6,419.26	2,864.24

자료 : WTA(2019년 10월 기준)

2018년 한국 대(對)SSA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1	광물성 연료	1,573,753,569	3.43%
2	선박과 수상 구조물	1,428,890,777	-51.91%
3	차량 및 그 부품	665,209,288	6.51%
4	보일러와 기계류	657,424,122	35.72%
5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68,258,068	12.93%
6	전기기기	288,641,925	-5.09%
7	유기화학 제품	245,739,577	14.33%
8	무기화학 제품	102,122,092	16.99%
9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87,123,336	18.58%
10	기타 섬유제품, 넝마	87,011,294	5.65%

자료 : WTA(2019년 10월 기준)

○ (경쟁관계) '18년 아프리카 수입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수출 국가들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한국의 선박 영향으로 감소(전체 수입시장 점유율 2.1%)

– 특히, 기계류, 전자기기, 소비재 등에서 경쟁국과 경쟁 심화

주요국 수출입 현황

○ 남아공

– 2018년 남아공과의 총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3% 높은 33.7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9년 1~6월 교역규모는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84% 감소

– 차량 및 부품, 기계류 및 전기기기의 수출은 모두 감소했으나, 광학·의료기기 수출이 급증, 광·슬랙·회, 보석·귀금속, 차량 및 부품의 수입은 증가했고, 광물성 연료 및 철강 수입은 감소

○ 케냐

–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고, 중산층 증가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테러 사태 등 일시적 환경 요인을 제외하면 중장기적 수출증가세 유지 전망

– 2018년 수출은 1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38% 증가했고, 주 수출품목은 석유화학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정밀화학 원료, 합성수지, 컬러 TV 등

○ 수단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수단 수출규모는 1억 2,8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6,049억 달러)의 0.02%에 불과, 수단으로부터 수입액도 5,800만 달러로 비중 면에서는 미미한 수준

* 미국 경제제재로 인해 수단으로의 직수출보다 두바이 등 중동을 통한 우회 수출을 감안하면 실제 수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관세청을 통해 집계된 2018년 대(對)수단 수출 기업 수는 약 780여 개이며, 70%는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무역상

– 2018년까지 한국의 대(對)수단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건설중장비 부분품류, 자동차(승용), 가전, 석유화학,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의 대(對)수단 제재 해제 효과가 발휘되면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재, 소비재 수요도 증가 기대

– 특히, 농산가공품(257%), 종이 제품(74%), 정밀화학 원료(72%), 의약품(28%), 펌프(19%), 축전지(18%), 합성수지(15%) 등이 전년 대비 높은 수출 증가세 기록

○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의 경기 회복에 따라 2018년 수출 9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년 8월 말 기준 5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

– 수입 역시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 수입 증가로 2018년 10억 4,700만 달러 기록

- 무역수지는 2018년 1억 2,9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나, 금년 8월 말 기준 9,6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는 등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가나

- 2019년 기준 한국은 가나에 12위 규모의 수입국, 33위 규모의 수출국으로, 가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5배 이상의 흑자로 무역을 전개
- 한국이 가나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토석류·소금, 시멘트, 전자기기, 기계류 및 부품, 기타 섬유제품 등

○ 탄자니아

- 양국 간 교역은 2014년 최고치인 3억 7천만 달러 이후 현재는 약 2억 달러 수준을 유지 중이며, 2018년 수출은 1억 9,400만 달러 기록
- 주력 수출 품목은 석유 및 정밀 화학 원료 및 제품, 의약 등이며, 화학제품은 전체 수출금액의 약 24% 점유하는 주요 수출품목
- 탄자니아 의약품 시장 확대로 대(對)탄자니아 의약품 수출은 대폭 상승했고, 중고 의류는 동아프리카연합(EAC) 국가들의 수입 제제로 비율 감소 추세

○ 코트디부아르

- 2018년 양국 교역규모는 1억 2,600만 달러로 전년 1억 1,900만 달러 대비 5.9%의 증가세 기록
- 수출 1억 1,900만 달러(7.4% 증가), 수입 700만 달러(12.9%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억 1,2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8.7% 상승
- 2019년 7월 기준의 경우 수출 7,500만 달러, 수입 5백만 달러 기록 중
- 가전·전자제품, 건설기계류, 자동차, 기타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

○ 모잠비크

- 우리나라의 대(對)모잠비크 수출은 201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모잠비크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수입은 유연탄 수입에 힘입어 큰 폭 증가
- 2018년 대(對)모잠비크 수출액은 6,300만 달러, 수입액은 2억 3,500만 달러 기록

○ 에티오피아

-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5~2억 달러(수출 1억 달러, 수입 5천만 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오랜 기간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 유지
- 2014~2016년 양국 교역규모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7년부터 상승세에 접어들었고 에티오피아의 물류 조건 개선 및 외환 수급 호전 시 교역확대 기대

– 주요 교역품목으로 한국은 중장비·화학제품·승용차 등 기술집약적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로부터는 커피·참깨·채소류 등 농산품 수입

한국기업 진출 사례

☐ **A 기업(케냐)**

○ 수출품목 : 맹인용 점자 시계

- 닷은 한국 청년 스타트업들의 제3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사업을 통해 맹인용 점자시계를 개발
- '16년 한-케냐 정상외교 사절단에 합류하여 나이로비 시각장애인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현지 2개의 핵심 유통기업이자 원조단체인 ABC(African Braille Center) 및 KUB(Kenya Union of the Blind)와 8,000대 분량 약 100만 달러 조달을 위한 MOU를 체결
- '18년 7월 이낙연 총리의 케냐 방한을 계기로 개최한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하여 CSR의 일환으로 케냐의 제1위 이동통신사인 Safaricom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혁신제품인 닷워치 55대를 기증하면서 현지 제품 홍보
- '19년 5월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나이로비 혁신대전'에 참가하여 Safaircom을 통해 기 보급한 스마트 점자시계에 대한 사용자 후기 등을 발표하고, 추가로 150대 분량(약 5만 달러)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행사를 주최하는 UNICEF도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약 1,000대의 시험 오더를 진행할 계획
-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기기를 개발 보급하려는 시도가 현지 수요와 잘 맞아 떨어진 점, 현지 사정에 정통한 코트라 및 KOICA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조사 및 기술 개발을 한 점, 현지 시장에 대한 애착과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는 점 등이 성공 요인

☐ **B 기업(탄자니아)**

○ 수출품목 : 생활용품

-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더 높은 수준의 생활용품 수요 증가,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을 고품질로 인식
- 한국기업의 높은 품질을 앞세워 한국의 샴푸, 바디워시, 세제 등 생활용품을 탄자니아에 유통하고, 특히 현지인들이 선호에 맞게 거품을 더 많이 나오는 비누 등 현지 선호도에 맞는 상품 개발
- 지속적인 시장개척 노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결실, 현지 직접 진출하여 유통망 직접 관리, 현지에 유통되는 유럽산(고가), 인도/중국(저가) 상품에 경쟁할 수 있는 포지셔닝 전략 필요

☐ **C 기업(코트디부아르)**

○ 수출품목 : 남성용 내의

- 연중 무더운 더위 탓에 코트디부아르의 남성 대부분은 원활한 땀 흡수를 위해 내의 착용이 습관화되어 해당 제품 수요가 높음
- 남성 내의의 경우 다른 의류와 유사하게 아자메(Adjamé)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데 대부분 중고내의임
  * 전체 소비재의 90%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전통시장
- 가계구매력 문제로 중고의류 구매가 빈번한 코트디부아르에서 신제품 내의를 공급하게 된 흔치 않은 사례
- 이후 C 사(社) 제품은 아자메 시장 외 대형 유통매장으로도 납품

나. 투자

아프리카로 유입된 전체 FDI에서 한국의 비중은 0.3% 수준

○ 2018년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FDI는 대(對)세계 전체 FDI의 0.3%에 불과할 정도로 아프리카 대한 투자가 매우 적은 편

– 2019년 9월까지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FDI 누계는 49억 달러

2018년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FDI 규모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전체	12,707	59,263	16,949	49,786
아프리카	150	147	186	157
비중	1.2%	0.2%	1.1%	0.3%

자료 : 수출입은행(북아프리카 포함, 2019년 10월 기준)

○ (연도별) 2006년 이후 본격적인 투자진출 시작, 2019년도는 광업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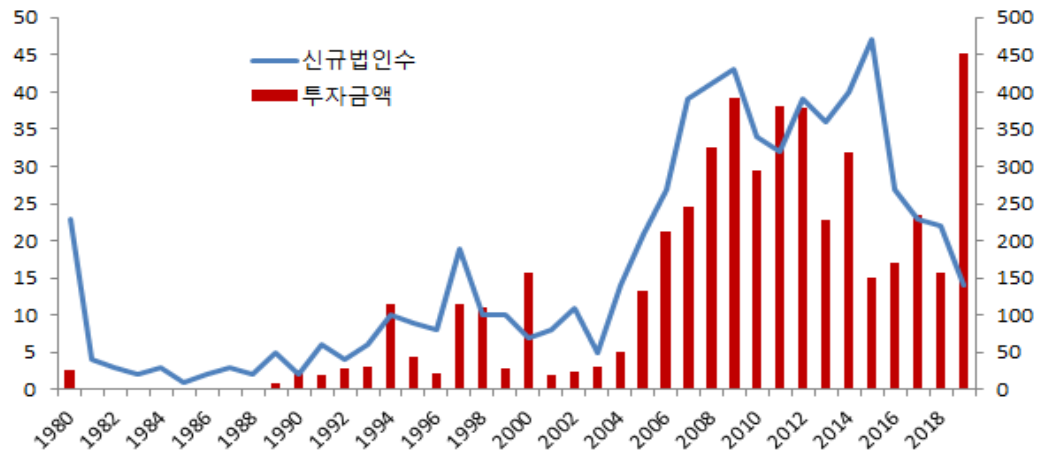
– 연도별로 우리기업의 SSA 투자진출 금액 추이를 보면, 자원개발 및 인프라 진출이 본격화된 2007년 이후 매년 투자된 금액은 1.5억 달러 이상

– 2012년 대(對)SSA 투자진출은 자원개발 투자 감소로 급감,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다소 위축된 경향

– 2019년 1~9월에는 제조업 투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업 투자가 600% 급격히 증가하여 4억 5,100만 달러의 투자금이 108건에 걸쳐 송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연도별 한국의 아프리카 투자진출 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북아프리카 포함, 2019년 10월 기준)

○ (업종별)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업종을 보면 법인 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진출이 전체의 68%를 차지, 특히 제조업은 꾸준히 진출

2018년 기준 한국의 아프리카 투자진출 업종 현황(누적)

업종분류	신규 법인수 (건)	투자금액 (백만 달러)	비중 (투자금액 기준)
제조업	186	874	18%
도매 및 소매업	102	299	6%
건설업	122	154	3%
광업	42	3,060	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	17	0%
농업, 임업 및 어업	31	75	2%
부동산업	12	38	1%
운수 및 창고업	21	14	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1	35	1%
숙박 및 음식업	11	266	5%
정보통신업	13	22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	49	1%
금융 및 보험업	6	2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2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2	-
기타	13	0	-
합계	662	4,929	100%

자료 : 수출입은행(북아프리카 포함, 2019년 10월 기준)

○ (국가별) 2000년대 후반부터 마다가스카르에 투자가 늘어나 누적금액 기준 마다가스카르 투자금액 규모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22.5억 달러 기록

– 남아공, 나이지리아, 수단, 가나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며, 최근 3~4년간 대(對)에티오피아, 앙골라 투자금액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

2019년 9월 누적 기준 한국의 대(對)주요국 해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국가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남아공	77	321,790	256	385,399	309
모잠비크	8	42,837	34	47,015	40
탄자니아	30	7,958	75	29,230	84
케냐	31	10,410	89	22,804	103
에티오피아	20	40,329	266	63,112	273
수단	10	149,444	28	158,063	24
가나	44	136,159	164	197,887	216
나이지리아	44	302,270	139	494,326	195
코트디부아르	14	60,999	39	75,301	7142

자료 : 수출입은행(2019년 10월 기준)

한국기업 진출 사례

□ D 기업(남아공)

○ 투자 분야 : 신재생에너지

- K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남아공 현지 기업과 프로젝트 공동개발 협약 체결
  * 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주주사가 SPC 내 직접적 지분투자를 하는 형태의 협약
- '14년 9월 현지 에너지부 4차 신재생에너지 민자발전 프로젝트 응찰, 이후 '15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수주에 성공
- 현지 전력청 측, 화력 및 원자력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생산단가가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PPA 체결 지연됐으나, 관계부처 주요 인사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병행
- '18년 4월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력청과의 PPA 계약 체결, 이후 F/C를 달성하며 실질적인 착공에 돌입

□ E 기업(탄자니아)

○ 투자 분야 : 가발 제조

- 가발은 아프리카 여성들이 매우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필수재로 교체주기도 1개월 정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창출
- 현지의 낮은 임금을 활용해 수작업으로 제품 품질을 향상했으며, 고급 원사 및 한국산 설비 및 기술을 사용해 중국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품질 경쟁력을 확보
- 또한, 미용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제품 개발 노력
- 현지 소비시장 확대 상황 및 현지의 고수요 품목을 포착하여 한국의 기술 및 자본에 현지 저임금을 결합해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도모한 것이 주요 성공 요인

주요 프로젝트 수주 사례

□ REIPPP 민간발전 프로젝트

<table>
<tr><td rowspan="2">해외발주처</td><td rowspan="2">남아공 에너지부</td><td>수주기업</td><td>KC코트렐사</td></tr>
<tr><td>수주규모</td><td>약 6억 달러</td></tr>
<tr><td>프로젝트
상세정보</td><td colspan="3">• 수주 시기: 2015년 4월
• 프로젝트 분야: 25MW 바이오매스 발전소
• 발주방식: 국제입찰
• BTO 방식으로 약 30개월 공기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후 20년 동안 생산될 전력 25MW를 Eskom에 판매
– 25MW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주주사 중 한 곳인 Sappi가 소유한 Mill에 해당 발전소 건설 후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IPP 사업</td></tr>
<tr><td>수주과정</td><td colspan="3">• (2014.4) 프로젝트 공동개발 협약 체결(Sappi-KC Africa 공동개발 협약 체결)
• (2014.9) 남아공 DOE의 REIPPP 4차 입찰
• (2015.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수주)
• (2016.10) Financial Close
• (2017.7) 에너지부에서 Eskom과 REIPPP 프로젝트 사업자들과 PPA 협상 해결 방한 진행 중
• (2018.4) Eskom과 PPA 체결</td></tr>
</table>

□ 말라위 Shire Valley Irrigation 프로젝트

해외발주처	말라위 농업부(수자원관개부)	수주기업	농어촌공사
		수주규모	약 45만 달러
프로젝트 상세정보	• 수주시기: 2017년 6월 • 프로젝트 분야: 농업, 관개 시설 • 말라위 쉬레 밸리 관개수로 사업 실시 설계 1단계, 2단계 수주		
수주과정	• (2016.5) GPP 2016 발주처 초청 • (2017) 말라위 홍수피해 관개 시설 복구 감리 및 설계 지원 • (2018.4) GPP 2018 수자원관개부 매니저 초청, 추가 진행 프로젝트 관련 미팅 • (2019.2) RFP 제출 후 제안서 평가 중		

□ 남아공 석탄 화력발전 IPP 프로젝트

해외발주처	남아공 에너지부	수주기업	한전/마루베니/현지기업
		수주규모	약 357억 달러
프로젝트 상세정보	• 수주 시기: 2016년 10월 • 프로젝트 분야: 630MW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 한전과 일본 마루베니 선정 – 남아공 타바메시 석탄화력발전 입찰사업은 남아공 림포포 지방 레팔레타운에 위치 – 총 2개 유닛을 설비할 예정으로 약 30년간 운영할 계획 – 한전과 마루베니가 O&M을 진행할 계획		
수주과정	• (2014.1.28) KOTRA 무역관, 남아공 에너지부와 면담하여 Coal baseload IPP 프로젝트 발굴 • (2015.11.2) RFP 입찰 서류 제출 • (2016.5.3) 추가 정보자료 제출 • (2016.10.10) 남아공 에너지부의 타바메시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2016.12.1)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017.7.3) 기재부 출자계획서 협의 완료 • (2017.11.10)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 나이지리아 비료 플랜드 건설 프로젝트

해외발주처	Indorama사(IEFCL)	수주기업	대우건설
		수주규모	약 2억 8,850만 달러
프로젝트 상세정보	• 수주 시기: 2018년 3월 • 프로젝트 분야 : 농업, 비료 공장		
수주과정	• 나이지리아 남부 Rivers주 Port Harcourt에 소재한 비료 공장 건설 프로젝트(Indorama Fertilizer Train2)로, 암모니아(2,300MTPD), 요소(4,000MTPD) 복합비료 생산 예정 • 발주처(Indorama)가 대우건설의 기술, 공사 수행능력 및 현지사업 운영능력 등을 높이 평가하여 수주함 • 기타 Gbaran Ph. 3A(파이프라인 건설공사, 발주처 Shell)등 프로젝트 수주 추진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남아공

○ 한-남아공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논의는 다소 미진했으나, 2019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문 이후 재점화

-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 연장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진출 애로사항 해소 등이 동 방문의 주요 논의 의제로 제시
  * 남아공 정부는 한국인 주재원에게 최대 4년 비자를 발급, 그 연장이 까다로워 현지 진출 저해
- 그 외에도 양국 간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합의

○ 한국의 경제발전 성공 경험 공유 사업 위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추진 가능

-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사업 등 첨단산업의 양국 간 인적, 기술적 교류 추진 및 4차 산업으로의 도약(leap-frogging)을 통한 국가 및 경제발전 방안 제시
- 국민건강보험, 최저임금제 등 남아공 정부는 다양한 법안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바, 우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자문 가능 전망
- 에너지, 인프라 등 프로젝트 부문 정부 주도의 패키지형 대중소 동반 진출 모델 마련, 재정적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논의 필요

케냐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 케냐 산업부는 2020년까지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중 한국산업단지 개발 경험 공유 및 케냐 포틀랜드 지역을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
- 2017~2018년에 3차 단계로 현지 산업부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방한단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운영에 대한 방한 연수 수행
- 2019년부터 국제개발협력자금(EDCF) 등을 활용하여 케냐 내 가시적인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가능성 타진 중

○ EDCF 자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

- 2016년부터 대규모 자금의 부담 없이도 우리의 선진 기술·교육·경험을 이전할 수 있는 정보통신, 과학교육 사업 중심으로 경제개발협력 사업 본격화
- 2017년에 추진된 EDCF 협력사업은 콘자 ICT 신도시 내에 총 9,470만 달러 규모의 한국 KAIST 케냐 분교 설립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9년에 본격 시공사업 진행 예정이고, 나이로비 시내에 버스전용노선화 사업(BRT, 총 6,500만 달러 예상), 지능형 교통통제시스템(ITS) 사업 등이 진행 중

탄자니아

○ (유상) 차관제공의 경우 전력송배전, 교량, 의료, 상하수도 등 사업에 집중
* 전력송배선(3) : 킬리만자로-아루샤/이링가-신양사 송전망, 키고마-나카나지 변전소
* 상하수도 및 관개(3) : 도도마 상수도 확충, 다레살람 하수도 처리, 잔지바르 관개
* 교량 (2): 말라가라시강 교량 및 도로, 샐린더 교량
* 의료(2) : 무힘빌리의과대학 및 의료기자재 공급
* 기타(2) : 직업훈련센터 건립, 주민데이터센터 건립

○ (무상) 현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지원
* 역량강화 : 공항·외교관·학교장·농업센터·공무원 역량강화, 한국 학위과정 연수, 교사파견 등
* 인프라 개선 : 싱글윈도우 시스템, 잔지바르 양식, 교육환경, 에듀테인먼트, 세렝게티 홍보관 등
* 의료 : 오지/모자보건/감염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보건의료체제 강화, 병원운영 컨설팅 등

가나

○ 가나는 현재 정상 석유제품에 품질이 낮은 물질을 혼합해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급휘발유에 등유를 혼합하거나 수출용 면세유나 해상선박연료를 유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끊임없는 감시와 노력 필요

○ 2019년 4월 가나 국립 석유청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관리 기술협력 양해각서 서명
– 사업 내용은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 분야의 기술정보 교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분야의 공동조사 및 연구 △상호 방문 및 전문가 교류 등 협력 활동

코트디부아르

○ 풍부한 원자재 및 농수산물 생산 능력에 비해 가공기술·설비 부족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 통한 선진기술·설비·장비 도입 필요성 대두
* 코트디부아르 주요 농산물별 가공율 현황 : 코코아(반제품 33%, 완제품 1.5%), 커피(5~10%), 캐슈너트(15%), 면사(2.3%), 천연고무(2% 미만)

○ 아프리카 인프라 부문 투자는 정부 및 MDB 모두 증가세로 시장 확대 기대
* '17년, 정부 $815억(22%↑), WB $70억(92%↑), AfDB $34억(15%↓)
– 에너지, 교통, 수자원, 농업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협력, 우리 기업 참여 독려를 통한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모색
– 高부가가치 분야(투자개발형, front-end engineering design) 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 수주 및 관련 기술·설비·제품 수출 모색

수단

○ (무역투자) 자국 산업화, 광물, 석유 자원개발 정책 등에 한국 참여 희망

–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은 수단 정부가 한국 측에 가장 기대하는 사항이나 아직 수단 내 외국인 투자는 아랍권의 농업, 광산개발, 복제약 공장 등에 국한된 상태

– 과도정부 안착 및 美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 무역, 투자 전반에서 우리기업과 거래 확대 가능성 존재

○ (제조업) 자동차 조립, 의료기기, 타이어, 기초 플라스틱, 포장인쇄 등 분야에서 수단 중대형 기업의 제조업 신규 진출·확대 수요 포착

– DAL, GIAD, CDC 등 대기업들도 제조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우리기업의 플랜트, 설비, 부품 공급 및 엔지니어링 분야 참여를 통한 상생 협력 기회 존재

– 중대형 기업의 제조업 진출 수요에 맞춘 아국 기계설비, 원부자재 수출 필요

○ (농축산광업) 석유 대체를 위해 금 등 광산업 육성, 2017년 처음으로 금 생산 100톤 돌파, 수단은 아랍권 농지의 30%를 차지, 아랍권 최대 농업국으로 농업 현대화를 위한 농기계, 비료 사용 등 장려

– 농축산·광업 현대화로 증가가 기대되는 농기계, 광산장비 수요 대응 필요

모잠비크

○ (천연가스) 2017년 제4광구(Area 4)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로, 2019년부터는 제1광구(Area 1) 개발도 본격화('19.6월 제1광구 개발 프로젝트 최종 투자결정 발표)

–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사회 인프라가 열악해 본격적인 천연가스 개발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며, 조선, 해운, 엔지니어링, 건설, 비료, 화학 플랜트, 가스발전소 등 연관 분야도 막대한 파급효과 전망

– 우리기업들로서는 직접적인 사회 인프라 분야보다는 화학 플랜트, 가스발전소 등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기회창출에 주력 필요

* 제4광구 지분 보유한 가스공사의 브랜드와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필요

○ (천연가스 차량) 모잠비크 에너지부는 천연가스 활용 확대 및 원유수입 비용 절감을 위해 천연가스차량(NGV) 확대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천연가스차량 선진국인 우리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

– 2018년 9월에 양국 정부 간 천연가스차량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되었으며, 한국 환경부의 자금지원으로 프로젝트 타당성(F/S) 조사도 완료('18.10월)

– 천연가스차량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모잠비크 정부에서도 우리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유망

* 한국은 '00년부터 천연가스차량 공급, '15년 기준 국내 시내버스의 약 81%(31,115대)가 천연가스 버스

Ⅲ. 진출전략

※ 아프리카는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지만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주목받는 시장
※ 정부 주도 제조업 육성, 인프라·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등 진출 기회 多
※ 현지 니즈를 파악하고 기술 우위를 통해 상생 협력 전략으로 진출 필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아프리카 시장 SWOT 분석>

S 강점 (Strength)
- 최빈국에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경험 보유
- 세계 수준의 제조기술/IT 및 GVC 망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다수 보유
-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피식민 지배 및 내전 경험 후 민주화 및 정치·사회 안정 경험 보유

W 약점 (Weakness)
- 지리적 접근성 어려움 및 현지 정보 부족
- 주요 경쟁국 대비 적은 규모 개발 협력 지원
- 아프리카에 시장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 부족
- 한국 정부와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교류 및 범정부 차원의 협력 아젠다 발굴 부족

O 기회 (Opportunity)
- 자원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 위해 각국 정부에서 산업 다각화 추진
- 인구 및 소득 증가로 내수시장 지속 확대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 AfCFTA 출범으로 역내 교역 증가 전망

T 위협 (Threat)
- 유가, 환율 등 대외 변화 대응에 취약
-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의 낮은 신용등급으로 수출금융 이용 제약
- 열악한 사회 인프라로 전력 부족, 물류비 상승 등 비즈니스 환경 열위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브랜드화 • 현지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연계한 협업 전략 개발	현지 수요+우리 강점을 결합한 호혜적인 전략
ST 전략 (강점 활용)	• 단순 상품 수출의 한계를 벗어나 현지기업과 파트너링 구축 등 현지 진출 방법 다변화 • 국가별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주요 수요를 예측하고 현지 정부에 선제적인 프로젝트 제시	현지국산업화 발전 지원을 통한 수요 선점
WO 전략 (기회 포착)	• 거점국 진출 후 AfCFTA 포함 역내 경제공동체 통해 인근 국가로 확장 전략 •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 외국투자 특혜 활용	품목별 거점국가 선정 후 인근국 확산 전략
WT 전략 (위협 대응)	• 현지 정보에 능통한 역량 있는 현지 에이전트와 협력 • 수출금융지원 제도 이용해 리스크 완화	현지기업과 파트너링 구축 등 진출 방법 다양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자원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 (산업 다각화)	(제조업) 제조업 육성 및 산업화 정책을 활용한 시장 진출 (농업) 현대화 및 자원 가공 기술 이전으로 부가가치 제고
세계 최대 규모 젊은 소비시장	(소비재)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소비 계층별 맞춤형 플랫폼 활용 (문화) 온라인, SNS, 한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효과적인 마케팅 강화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 시장 활발	(인프라) 현지 정부에 선제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 (수요창출형)하고 상생 협력 (에너지) 자금조달 방법이 포함된 패키지 딜 형태의 포괄적 협력 제안
신성장 분야 협력 기회 확대	(ICT) 우리 기업들의 앞선 ICT 선진 기술 바탕으로 협력 (의료) 공공 부문 네트워킹 구축 후 체험형 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
정치·사회적 불안 해소 노력	(방산) 사회적 불안·위협 요소를 기회로 활용해 G2G 공략 (보안) 사이버 범죄 보안 소프트웨어 틈새시장 진출

단순 상품 수출 단계를 벗어나 아프리카 시장 수요 및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출전략 수립

2-1.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 연계 수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자원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지향해, 산업단지와 경제특별구역 등 특혜를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
  * 2019년 기준 북아프리카 포함 54개국 중 38개국에서 총 237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운영 중
-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대륙

SSA 각국 정부의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 다각화 추진 확대

- (제조업) 모노컬처 경제 구조를 띠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을 수출하고 공산품은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교역 형태를 유지
  - 이에 아프리카 전역에서 26개국 이상이 자원의존형 경제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
  - 산업단지 조성, 제조업 투자 시 세제 감면 등이 제조업 육성의 주요 수단
  - 자국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적극 유치
- (농업) SSA 전체 GDP의 15%*를 차지하는 농업은 수출, 물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
  * 특히, 케냐, 수단,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는 GDP의 30% 이상 점유
  - 노후화된 설비 인프라 및 노하우 부재로 생산량이 비교적 적고, 1차 상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여 부가가치 제고 어려움
  - 1차 상품 수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가격 및 수입국 여건 변동에 매우 취약

한국식 성공적인 개혁 및 압축 성장 모델 제시로 세계 상위 기술 연계 수출

- (제조업) 제조 강국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과거 산업 발전 경험을 토대로 제조 기술 및 관련 설비, 자재, 노하우 전수
  - 아프리카 현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식음료 및 의류, 가전 등 소비재 제품 생산라인 중심으로 우선 이전 고려 필요
  - 장기적으로는 현지 기관이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방안으로 접근, 시설 유지보수 등에 지속 참여하며 추가 수익창출 기대
- (농업) 농산물 생산량 개선 및 농가공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 지원 동시 이행
  - 농업기술시범센터 등을 통한 품종개량 전수, 농업기술 이전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지원 사업 도입

– 농촌 교육, 생산성 개선 프로그램 및 CSR을 동반한 복합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농업 현대화에 기여하며 진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

현지 정부의 육성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국가 위주로 진출

○ (제조업) 제조 육성 정책으로 우리기업에 특혜가 있는 국가를 거점으로 선정

– (남아공) 제조업의 GDP 기여도가 14%이지만 숙련된 기술과 인력은 부족하여 경공업 중심으로 운영, 산업개발지구(IDZ)와 특별경제구역(SEZ) 활용 필요

– (케냐)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제조업 육성은 GDP의 8~10% 내외를 차지하며, 정부는 한국 경협 자금을 활용한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희망

– (탄자니아) 개발정책을 통해 석유 화학 및 제약 제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고, 수출가공지역(EPZs)과 경제특구(SEZ) 활성화로 제조업 기반 확대

– (수단) 석유 수출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개발 5개년 시행 중, 공산품의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제조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수요가 높은 편

○ (농업) 농업이 전통적 최대 산업 분야로 아프리카 내 후진국을 거점으로 진출

– (수단) GDP에서 농업이 31%를 차지하나, 농업시설 투자 부족으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생산성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랍권의 경작 가능한 면적 중 45%를 점유한 지리적 이점으로 중동권으로부터의 농업 투자가 꾸준

–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제기구 투자가 활발하고, 농업 교육 및 기술 발전에 주력

– (가나) 신용 대출 자금지원 프로그램, 잉여 곡물 구입 및 재판매 기관 설립 등 정부의 농업 지원이 적극적이며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유망 협력 분야 - 한국형 산업단지

□ 케냐 내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 사업

○ (추진배경) 2015~2016년에 '산업클러스터 개발에 대한 정책자문'을 시행하여 한국 산업단지 개발 경험 공유, 케냐 포틀랜드 지역을 조성 후보지로 선정

○ (추진성과) 2016~2017년에 산업단지 개발방식 및 관리계획, 산단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2017~2018년에 3차 단계로 현지 산업부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방한단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운영에 대한 방한 연수를 수행

○ (향후 계획) 2019년부터 국제개발협력자금(EDCF) 등을 활용, 케냐 내 가시적인 클러스터 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 중

○ (기대효과) 한-케냐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의 케냐 시장 투자 진출 확대, 인프라 건설 우위 선점 등의 효과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아프리카 제조기지 구축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의 효과 기대

2-2. 젊은 소비시장에서 우리 강점을 특화한 진출전략 수립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미래 최대 시장으로 부상
  * 아프리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대되면서 주요 구매품목이 생필품에서 재량적 소비재로 변화
-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해 일부 중국 저가 제품을 제외하면 시장 가격이 높게 책정된 편

젊은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젊은 층의 특수성을 띤 소비시장 형성

- (소비재) 아프리카 소비재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7.5% 성장 예상
  * 가계 소비 기준 SSA 소비재 시장규모는 '18년 4,946억 달러→ '21년 6,138억 달러 성장 전망(BMI)
  - 블랙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아프리카 신흥 중산층은 무조건적인 저가 상품 구매가 아닌 브랜드, 품질, 유행을 고려한 합리적 구매를 선호하며, 아프리카 젊은 세대는 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높고 SNS에 쉽게 노출
  - 제품 구매 시 글로벌 인기 제품은 가격보다 브랜드 네임 벨류, 디자인, 인지도가 중요하고, 그 외 일반적으로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
- (문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음식, K-Pop, K-Beauty, K-Drama 등 콘텐츠를 접하며 한류 확산
    *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TV 채널에서 편성하여 방영하며, 남아공에서 BTS 팬덤 규모는 10,000명가량으로 추정(Facebook)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 거점 마련 후 온·오프라인 융합 진출

- (소비재) 권역별 소비층 특성과 발전 정도에 따라 최적화된 진출전략 필요
  - 소득수준, 구매 패턴 등에 따라 남부, 서부, 동부 권역별로 진출품목 다각화
  - 이미 발전한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 경험을 살려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생태계에 적합한 형태로 온라인 시장 진출 시 거리상 한계 극복
  - 화장품 외 품질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한국산 생활소품, 의류, 잡화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꾸준히 향상되는바, 다양한 한국 제품 성공 가능
- (문화) 한류 문화 산업과 연계한 소비재 상품 수출 활로 모색
  - 기 진출 국가 중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 높은 인지도를 지닌 선진국 사이,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은 한류 문화를 활용한 틈새시장 공략 필요
  - 한류 스타가 사용하는 화장품,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생활 소비재 등 한류 콘텐츠와 접목한 연계한 마케팅 사업 진행

소비층 특성에 따른 권역별 거점 국가 지정

○ 아프리카 3대 소비재 시장을 발판 삼아 인근 국가로 확장

– (나이지리아) Shoprite, Next Cash & Carry 등 선진 유통망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Miniso 등 글로벌 생활잡화 전문점도 성공적으로 론칭, 서구화된 쇼핑몰, 모바일 결제 등 최신 기술에 능숙한 젊은 층이 시장 확대를 주도, 2019년 소매업 판매는 15.2% 증가할 전망

– (케냐) 모바일 보급률 및 가처분 소득 확대 등으로 중산층 지속 성장과 Shoprite, Carrefour 등 글로벌 유통망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모바일 시장은 세계 선두주자이며 인터넷 접속 확대에 따라 E-commerce 시장 또한 동반 성장

– (남아공) 부진한 경제 성장, 높은 실업률 등으로 소비시장 또한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나, 아프리카 내 최대 선진 소비시장 구축했고, 타 국가 대비 높은 소득수준을 보유,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진출도 가능하며, 식음료 외에 패션, 뷰티, 전자기기 등 비필수재 소비 비중도 높은 편

남아공 대표 패션지 Fairlady, K-Beauty 특집기사 게재

- 소비대전 참가 온라인 쇼핑몰 Glow Theory 취급제품(대인테크 마스크팩 등) 중심으로 제품 및 한국식 피부관리법을 소개(3월호, 6개면)
- 남아공 소비시장 내 K-Beauty에 대한 높은 관심도 확인

KOTRA 아프리카 소비재 대전

① **(제1회) 2016 케이프타운 한국 소비재 상품전**
- (참가규모) 총 42개사
- (주요 성과) 아프리카 한국 소비재 수출 대전 최초 개최, 4개사 성약

② **(제2회) 2017 남아공 한국 소비재 판촉 상담회**
- (참가규모) 총 31개사
- (주요 성과) 전시 참가 기업 58% 성약, 쇼핑몰 내 전시 및 판촉행사 동시 진행하여 일반 방문객들의 한국 소비재에 대한 인식 제고

③ **(제3회) 2018 아프리카 소비재 대전(남아공-케냐 연계 진행)**
- (참가규모) 총 89개사
- (주요 성과) 아프리카 동·남부 2개 거점으로 확대 추진,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행사 진행, 온라인 쇼핑몰 입점체결 등 O2O 진출기반 구축

④ **2019 한국 소비재 대전**
- 2019.10.1.(화)~2(수) 남아공 케이프타운, 10.4(금)~5(토) 케냐 나이로비 진행 예정
  * (유관기관) 국내 지자체, 현지 공관, AT, 대기업(삼성) 등과 협업 강화
- 30개 한국 기업 및 50개 부스 규모로 B2B 1:1 상담회 및 B2C 판촉전 추진
- 대형 바이어 및 벤더 70개사 초청 예정

2-3. 국별 정책에 맞춘 수요 발굴 및 상호 호혜적인 협력 제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9년 경제회복과 유가 소폭 상승으로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은 침체기에서 벗어나 6.8% 성장 전망
*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는 2019~2023년간 연평균 7.1%의 성장률 기대(BMI)

○ 최근 아프리카 에너지 부문 투자는 유가 상승에 따른 투자자 신뢰 회복과 미탐사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회복세 가시화
* 세계 석유 메이저 업체들(IOC)과 국영 석유회사(NOC)의 자본적 지출(Capex)는 2018년 191억 달러에서 2019년 2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높은 투자수요 가운데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경쟁

○ (인프라) SSA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 사안으로 꼽으며,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정비, 신도시 개발, 도시 생산기반 구축,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한 주요 거점도시 연결 인프라에 주력

– 전력 인프라 개발 수요는 산유국이 몰려 있는 서부 지역이 가장 높고, 도로 인프라와 보건 및 위생 시설은 서부와 동부 지역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현지 기초 산업의 미발달, 파이낸싱 및 기술 부족 등에 기인해 아프리카 10대 건설 시장*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 기업 점유율은 28%(건수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주도

* 아프리카 10대 건설시장(금액 기준) :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앙골라, 가나,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카메룬

–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 전체 건설 프로젝트 중 54%(건수 기준)를 차지하여 건설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도

○ (에너지) 아프리카 전력 시장 수요는 매년 5%씩 성장해왔으며, 2030년까지 약 9,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전망

– 유전 탐사에 대한 투자 회복세가 상류 부문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하류 부문은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법규, 인프라 등으로 투자가 정체되고 있어 성장 저해

–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의 장기적 성장 모멘텀으로 모잠비크,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대규모 유전 및 가스전 개발 기대

* 우간다 Albertine Graben 지역 라이선스 입찰 진행('19.5), '22년 케냐와 최초로 일 25만 배럴 원유 생산 기대
* 모잠비크 최초 육상 LNG 수출 터미널은 12.88mtpa 생산능력, '24년 생산·수출 예정('19.6 최종 투자 합의)

– 개발기술, 활용방안 모색 등에 있어 현지 산업 기반이 부재하기 때문에 석유와 같은 일부 분야는 소수의 선진 기업이 이미 시장을 선점

–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에너지 시장 직접투자는 2005년 15억 달러에서 2011년 150억 달러로 급성장 추세이며, 아프리카 시장 지형 변화 야기

중국에 기술 우위, 선진국에 가격 우위라는 역발상으로 기술+자본 패키지 제공

○ (인프라·에너지) 한국의 선진 인프라 건설 능력을 활용, 자원 운송 및 수출을 위한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

– 현지 정부, 유관기관 및 아프리카 동 산업 개발에 관심이 높은 국제기구와 정례화된 협력 채널 구축해 정책적 과제와 사업 관련 법규 등에 능통한 현지 컨설팅 및 프로젝트 동향, 입찰 정보, 입찰 과정 등의 정보 교류 강화

– 금융주선 및 투자개발형 PPP 사업을 공략하면 수의계약 대상인 민간기업 주도로 신속히 개발되어 공적 재원 투입 사업 대비 효율적

* 아프리카는 '16년 33억 달러 규모의 11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PPI로 진행한 바 있음

– EDCF(기반시설 차관제공)와 민간기업(설비투자, 사업 운영)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수익성 개선,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사업 타당성 부족 극복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고 국가를 거점국으로 선정

○ 권역별로 동부와 서부에서 투자가 강세

– (모잠비크)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 관련 인프라 확충(항구·철도·전력·도로 등), 전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 인프라(발전소, 송배전선 등) 분야 투자 확대

– (에티오피아) 유상차관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황세, 고속도로 건설 및 개보수, 발전소 건설, 송전망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들이 적극 참여 중

– (수단) 남수단 원유 수출 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수단 항에 정유소 건설 계획

– (나이지리아) 전력, 교통 인프라 확충을 12대 중점 추진 정책 과제로 지정

유망 협력 사례 - 모잠비크 천연가스차량 프로젝트

□ 모잠비크 천연가스차량(NGV)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

○ (추진배경)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차량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

○ (추진성과) 모잠비크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4월 주모잠비크 한국 대사 및 KOTRA 마푸투 무역관장과의 면담에서 모잠비크 천연가스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 MOU 체결을 희망하였으며, 이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지난 우리 환경부는 작년 9월 5일에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모잠비크 에너지부와 천연가스차량 협력 MOU를 체결했고, 또한, 우리 정부 자금 지원으로 국내 업체에서 모잠비크 천연가스차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모잠비크 정부에도 전달해 정책수립 지원

○ (향후 계획) 모잠비크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천연가스차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

○ (기대효과) 이미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 우리 기업들의 모잠비크 시장 진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2-4. 현지국에 선제적인 프로젝트 제안 및 한국의 선진기술 체험형 마케팅 추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SSA 모바일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온라인 전문 유통망 및 대형 유통기업의 온라인 진출 증가
  * SSA는 전 세계에서 모바일 가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2025년까지 연평균 4.6% 성장 예상
- 2018년 사하라이남아프리카(SSA)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16억 달러 수준

ICT, 의료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아프리카 각국 관심 증대

- (ICT) SSA 모바일 산업, 점진적 발전 아닌 도약(Leap Frogging)으로 빠르게 성장
  -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ICT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아프리카연합(SAA) 플랫폼을 활용한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모바일 금융 산업은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조성
    * '18년 말 SSA에 3억 9,570만 개 모바일머니 계좌 등록, 이는 전 세계 모바일머니 계좌의 절반 수준
- (의료) 중산층 확대에 따른 보건위생 인식 개선,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년층 성장 등은 阿 의료 시장 성장 잠재력 극대화
  - 생산능력 부재로 수입 의존도 90%, 국제 원조 및 자금지원 의존도 또한 높은 편
  - SSA 각국에서 낙후된 의료 산업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 추진이 적극적이며, 한국의 복합 의료단지, 통합 건강검진센터 등 의료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 등 벤치 마킹에 관심

현지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우리 기술 바탕, 현지 수요 선제적으로 제시

- (ICT) 한국의 선진 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민관 합동 솔루션 제시
  -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한국은 보유한 기술력으로 어필하여 통신망 확충, 디지털 변환(DSO), 민원 전산화, 전자정부, 전자통관 서비스 등 사업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제안
  -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모바일 결제, 핀테크, 에듀테크 산업 등 IT 환경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방송통신기술 전파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포괄적 민관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ICT 솔루션' 수립을 지원
- (의료) KOTRA 무역관 통해 관련 기관 네트워킹 구축 후 맞춤형 수출 연계
  - 조달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 의료기술을 알리고, 적절한 사전·사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제품 신뢰도 증대 및 고정 수요 확보
  - 구매 전 실제 체험을 통해 효용과 기능을 경험하고 정식 구매를 유도하는 체험형 마케팅 전략으로 CSR, ODA를 활용해 유무상 기증 등 제품 노출 유도

– 대형 병원 하나 설립보다 보건소 수십 개가 더 효율적인 아프리카에서는 현지 사정에 맞는 맞춤형 아이템과 진출전략 필요

동부·서부 아프리카 중심으로 진출 기회 모색 필요

○ (ICT) 모바일 이용률이 활성화된 동부, 남부 위주로 거점 국가 선정

– (남아공) 높은 인터넷, 휴대전화 보급률로 모바일 산업이 꾸준히 성장 중이며, 주요 은행 중심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구축

– (케냐) 2017년 모바일 결제 거래금액 3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8.5% 증가,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하고 시간·장소 제약 없는 편리성이 모바일머니 시장 성장 견인

– (탄자니아) GDP의 47%가 모바일로 거래되며, 모바일머니 도입 후 16%이던 금융 포용성이 86%로 확대되는 등 모바일머니로 금융서비스 수요 충족

○ (의료) 조달이 용이하고 제품 및 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국가를 거점으로 진출

– (남아공) SSA에서 가장 발전된 의료 산업 보유, 국민건강보험(NHI) 추진에 따라 수요 증가와 정부 지출 확대에도 불구 전문 인력 및 인프라 부족

– (탄자니아) MSD(탄자니아 의료조달청)가 남아프리카공동체(SADC) 15개 회원국 필수 의약품 조달처로 지정된바, 진출 시 인근국까지 확장 가능

– (모잠비크) 의료보험 도입으로 수요 발생 및 정부 보건 예산 증가

(진출 사례) 탄자니아, 모잠비크 ODA 진출

○ 탄자니아 : 정부의 유상원조 프로젝트(EDCF 기금 활용)를 통해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건설(지원금 : 7,650만 달러, 2017년 완공)
-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이 의료기자재 공급

○ 모잠비크 : EDCF 사업으로 2008년 모잠비크 중동부 켈리만(Quelimane) 지역의 중앙병원 건설을 지원(사업비 : 4억 5,000만 달러, 2016년 완공)
- Y社 : 진단기기 등 1,600만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 납품

– (가나) 정부 각종 의료 프로젝트 수주 계획은 FDI 개방으로 진입장벽 낮은 편

– (코트디부아르) 정부 중장기(2017~2025년) 보건 분야 투자 증대 계획 발표, 3년간 보건 인프라 및 장비 10억 달러 투자 예정

– (나이지리아) 국민건강보험(NHIS) 제도 운영, 2억 명 규모 시장에 외국 투자 증가

KOTRA 주요 ICT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한-잠비아 IT 협력 포럼**

- (참가규모) 한국 4개사 4명, 현지기업 25개사 28명
- (추진배경) 잠비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Smart Zambia를 발족, Smart City Project를 추진 중 (재원 : 중국 차관)
- (사업내용) 정부·발주처 초청/한국 ICT 산업 및 기업·제품 홍보
- (주요 사업 분야) 공항정보 시스템, 스마트시티, 교통 관제 시스템, 보안관리, 재난관리 시스템, 주민등록카드, 이민국 등 정보 전산화 등
- (주요 성과) △잠비아 정부 대상 최초로 개최된 민관합동 ICT 솔루션 세미나, △잠비아 이민국, 경찰청 및 ITC 관련 잠비아 기업들과 네트워크 구축, △잠비아 내 ITC 솔루션 진출협력을 위해 MOU 2건 체결
- (향후 계획)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통해 ICT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확인, 발굴 추진

2-5. 사회적 불안 위협 요소를 우리의 틈새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8년 아프리카의 방산 시장 규모는 약 193억 달러로 추산
  * 전 세계 방산 시장의 1%에 불과하나 내전 지속, 치안 불안, 노후 장비 교체 필요성 등에 따라 주목할 만한 시장
- 극심한 빈부격차 및 내전, 테러 위협 등 정세 불안은 치안 불안으로 이어져 방산·보안 수요 꾸준

품질이 중요한 시장, 불안한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수요 꾸준

- (방산·보안) 방산·보안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체 제조업 부재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고 외국기업에 대한 조달장벽은 낮음
  * 짐바브웨 쿠데타('18년), 에티오피아 국가비상상태 선포('18년), 케냐 테러('19년) 등
  - 남아공,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수단 등 상위 5개 국가의 방산 지출액이 전체 시장 규모의 약 54%를 차지
  - 방산 제품은 경찰, 군인 등 사용인력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에 따라, 가격보다는 품질에 우선한 구매 경향이 있는 가운데 기존 중국산 불신에 따라 품질이 안정화된 제품 선호
  - 치안 불안 지속세에 업무용·개인용 보안 장비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 IT 시장 성장에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IT 제품의 보안성 논란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하고 최적화된 제품·서비스로 공략

- (방산·보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전방위적 진출
  - 정부 간 협력(G2G) 사업을 통한 조달 시장 진출이 유리하므로 KSP 및 ODA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우리 정부가 보유한 불용 및 잉여 장비의 무상양도 및 신규 무기체계와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판매력 제고

– 자금 부족으로 구매회전율이 낮아 제품의 사용주기가 긴 편인 아프리카 시장에서 사후 A/S는 필수 요소이므로,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

– 연안 경비정, 조준경, 망원경 방탄 피복, 소형 전술차량, CCTV 등 하드웨어와 함께 지상 감시 체계, 시설통제기술, 디지털 포렌식, 해킹방지 등 IT 연계 시스템 구축

동 산업 내 경쟁국이 장악한 분야 외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 거점 마련

○ (방산·보안) 정부 지출이 높고 수요가 확대되는 국가를 우선순위

– (남아공) 노후한 방산 장비 및 높은 범죄율에 따른 보안 장비 수요 증가

– (케냐) 방산 제조기반이 없어 군수물자 수입 의존, 소말리아에 UN 평화유지군 파견 등 치안 유지 활동 활발하며 관할지 앙골라 군사비 지출도 높은 편

진출 성공 사례 : 케냐 경찰청 공공조달 시장 개척

□ **추진 배경**

○ 알샤밥 테러,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정치적 불안에 따라 방산(치안) 장비 수요 증가

○ 정상외교('16) 이후 한국 방산 장비에 대한 관심 고조

□ **주요 사업 추진 및 주요 성과**

사업명	시기	규모 및 주요 성과
케냐 국방부 방산구매단 방한 초청	'17. 4 (케냐)	• 케냐 국방부 실무조사단 4명 구성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수도방위사령부 방문상담 지원
중동아프리카 방산보안 사절단	'17. 5 (케냐)	• 참가업체 10개사 19명 • 4개사 MOU 체결 • 대전시청, 대전테크노파크 협력사업
대전시 WTA 수출상담회	'17. 9 (한국)	• 방산에이전트 2개사 방한 • CCTV 공급 2년간 U $200만 MOA • 방산보안사절단 사업 후속 조치
KODAS 연계 발주처 방한 초청	'17. 10 (한국)	• 케냐 유력 에이전트 2개사 및 우간다군 서열 2위 장군 방한 초청
2018 케냐 방산사절단	'18. 5 (케냐)	• 케냐 국방부·경찰청 고위관계자 대상 방산보안 장비 PT 및 상담회 • 한화(중동아프리카 방산보안 사절단 참가), 케냐 국방부 대상 포탄류 US$ 200만 수출 성약 달성

3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CSV 상생 협력	아프리카의 산업발전 단계에 맞는 CSV(Creating Shared Value) 상생협력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협 전략 추진
AfCFTA 경제공동체	AfCFTA 공식 발효에 따라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채널 활성화
산업·정책 한류	우리의 발전 경험과 현지 발전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컨설팅+인력개발+자금지원 등 패키지형 지원 사업 개발
삶의 질 개선 집중	주택 보급, 보편적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아프리카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협력 사업 확대
실리콘 사바나	새로운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국내 스타트업과 연계한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 개척

아프리카 협력 수요와 우리 발전 경험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통한 윈-윈 경협전략 추진

3-1. CSV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수익 동시 추구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소비자의 가치, 기업의 가치,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CSV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

* GE, 네슬레, 보다폰 등 글로벌 기업들은 CSV를 통해 경쟁 없이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조할 수 있다고 평가

CSR(기업 사회 공헌)을 넘어 CSV(공유 가치 창출)의 시대로

○ 글로벌 기업들이나 혁신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도 늘리는 윈-윈을 추구

– 세계적 통신 기업인 보다폰,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케냐에서 휴대전화의 통화 기능을 넘어선 M-PESA(모바일 송금 서비스)라는 사회적 상품 개발

* 기존 은행은 송금수수료가 최대 18%였던 반면 M-PESA는 1%대로 낮춰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 빈곤층 현금 직접 지원 효과가 있어 실제 다른 원조사업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 Solarkiosk라는 독일 업체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아프리카 지방 지역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여 가판대에서 판매

2G 휴대전화를 이용한 M-PESA 화면

* 자료 : Mobilepaymentstoday

Solarkiosk

* 자료 : GRAFT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와 아프리카 현지 니즈가 만나는 상생 협력

○ 진출 시장의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지 니즈를 파악, 우리 기업의 이익과 현지 사회 발전에 상호 호혜적인 방안 모색 필수

– ICT, IoT 등의 첨단기술, 친환경, 빈곤 문제 해소 등 CSV 니즈가 있는 분야를 지정하고, 요식 행위가 아닌 진정성 있는 운영이 동반되어야 할 것

–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셜 벤처 등 작은 규모의 기업들의 CSV 진출을 적극 권장하며 금융 지원책 마련 필요

(협력 사례) 엠뷰글로벌 아프리카 주요국 진출 추진

- (현황) 생리대 부족으로 인한 아프리카 여학생들의 잦은 결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사업) 국내기업 엠뷰글로벌은 남아공, 보츠와나 등 2개국 취약계층 여학생 대상 생리대 40만 장을 기부하고, 현지 정부 기관의 협조하에 현지 생리대 공장 설립 추진
  ⇨ 현지 사회문제 해결과 진출을 연계한 대표 CSV 성공 사례

3-2.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활용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AfCFTA 협정 발효 시 2022년까지 역내 교역은 2010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단일 시장 구축 시 역내 관세 혜택으로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 전망

* 아프리카 역내 관세 및 AGOA(미국), EPA(EU)의 특혜관세 적용 상품으로 진출 검토 필요

아프리카 단일 시장 형성에 주요국들의 투자 확대

○ 현재는 2019년까지 관세동맹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상품 교역에 관한 의정서 논의는 상당히 진전되어, 역내 생산품의 90%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

○ AfCFTA 이행 시 역내 무역량 증가, 무역자유화, 비관세장벽 철폐 등으로 가격경쟁력 개선, 좋은 가격의 물품과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

– 역내 생산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환경이 좋은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전망

품목별 거점 국가를 선정하고 무관세 적용이 예상되는 상품의 우선 진출 추진

○ (정부) 아프리카 주요 거점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 남아공, 케냐 등 아프리카 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 중심으로 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도 검토 필요

○ (기업)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및 기 진출 기업의 역내 조달 확대

– 역내에서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원자재, 부품 등을 활용 시 아프리카 각 나라에 기 진출한 우리기업의 원가 절감 가능

–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영어도 가능한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활용, 아프리카의 높은 실업률 문제 개선에 기여

– AGOA(미국), EPA(EU) 등 주요 선진국과 기 체결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선진시장으로 진출도 가능

○ (검토사항) AfCFTA는 체결 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 필요

– 물류 인프라 개선, 비관세장벽 및 자유로운 인력이동 문제 등 민감한 과제들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바, 세부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

3-3. KSP&ODA를 활용한 산업·정책 한류 확산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의 원조는 아시아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프리카의 비중이 증가 추세

*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비중은 12%대에서 20% 이상까지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서구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원조 규모

경쟁국에 비해 다소 적은 지원 규모로 각 기관 개별 진행

○ 지원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지원규모가 다소 적으며, 발전 경험 공유 수준도 초기 단계에 머무름

* ODA 지원(순지출, 백만 불) : ('13)310 → ('14)382 → ('15)405 → ('16)453 → ('17)408

* 주요국 ODA 지원(순지출, 백만 불, '17년 기준) : (미국)11,190 (일본)1,674 (영국)3,858

– 또한, 장기간 교육과 보건 등 일부 분야에 치우친 원조로 효과성 낮은 편

○ (KSP) 최근 한국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전자정부, 산업정책 개발 관련 KSP를 연간 5~6건 정도 진행해 오고 있음

최근 대(對)아프리카 KSP

연도	국가명	사업 내용
2017/18	탄자니아	Bagamoyo 경제자유구역의 Tech Park 설립 방안
	케냐	지능형 교통 체계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지원
	가나	조세수입 예측, 조세정책 평가 및 조세정보 시스템 개선방안
	아프리카PASET	중진국으로의 발전 위한 회원국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 - 르완다, 세네갈 중심
	에티오피아	주택건설 및 공공주택 행정 개선 방안
2018/19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자문
	에티오피아	공공부문 혁신과 역량 강화
	탄자니아	전자정부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방안
	나이지리아	파생상품시장의 운영 및 규제 방안

○ (ODA) 한국의 아프리카 ODA는 교육 및 의료 지원 형태로 수출입은행, KOICA, KOTRA 등 개별 기관별로 진행 중

대(對)아프리카 대표 ODA

연도	국가명	사업 내용
2018~2020	세네갈	(연수사업) ICT 정책 역량 강화
2018~2022	우간다	(프로젝트) UNICEF 카라모자 지역 초중등학교 식수시설 보급 및 위생교육 사업
2018~2023	탄자니아	(프로젝트) 다레살람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2019~2022	르완다	(프로그램) UNDP 유스커넥트 이니셔티브 확대 지원사업
2019~2023	가나	(프로젝트) 센트럴 주 쌀가치 사슬체계 향상 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통해 정책 컨설팅+인력개발+자금지원 등 패키지형 지원

○ 유관기관 간 정책 대화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진출 리스크 완화 (TOP-DOWN)

– 경제기반이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기대하는 경제협력은 금융, 기술, 경험이 필요한 복합적인 요구가 많음

– 이에, 유관기관별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협력 채널을 통합하고, 정책 컨설팅, 인력개발, 자금지원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분과별로 운영 필요

(협력사례) 케냐-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사업

- **(KOTRA)** 케냐 콘자시티 내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 사업 정책 자문
- (수출입은행) EDCF 자금으로 추진 중인 케냐 KAIST 건립사업과 연계
- **(KOICA)** 국내 상암 미디어센터 운영 노하우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정책 자문을 넘어서 금융, 인력 개발을 포함한 패키지형 KSP 지원사업 개발

3-4. 아프리카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교육, 의료) 집중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2050년까지 아프리카의 중위연령은 25세 이하에 머물러 가장 젊은 대륙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청년 실업률은 심각(중장년층 대비 평균 2배 이상 높은 수준)

○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은 보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의료 확대를 추진

아프리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

○ 15세에서 35세까지의 아프리카 청년 인구 4억 2천만 명 중 반수 이상이 실업 또는 취업 포기 상태이거나 불안정 고용

– 청년 실업이나 불안정한 고용이 장기화할 경우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 확보를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

○ 각국 정부들은 풍부한 청년 인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교육을 강조

– 농업, ICT, 제조업 등의 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인적 자본 확대를 도모

○ 남아공, 케냐 등은 범국가적 차원의 의료 서비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은 턱없이 부족

–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대부분 소모품 정도에 불과하며, SSA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한국형 의료단지 운영 노하우 전수,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교육 추진

○ 아프리카의 발달한 모바일 산업을 활용,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에듀테크 사업 협력

– 모바일 교육 서비스, 관련 기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원거리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 교육의 플랫폼으로 활용

○ CSR 활동과 연계하여 한국형 의료단지와 종합병원 구축사업을 진행, 구매 전 실제 체험을 통해 효용과 기능을 경험하게 하고 정식 구매를 유도

– (케냐) 경찰 전문 종합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 조달, 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정부 간 협력 사업 추진 기대

– (남아공) 남아공 정부는 2016~2019년간 보건 인프라 및 장비 마련에 17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관련 기회 포착 필요

3-5.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기술 수요를 연계한 경협 모델 개발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아프리카 주요 스타트업 허브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건당 투자 규모 증가세

* 2018년 유치된 458건의 스타트업 투자 중 금액 기준 상위 10건의 거래가 전체 투자액의 61%에 달하는 4억 5,700만 달러를 차지

'실리콘 사바나'로 불리며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들도 앞다투어 아프리카에 진출, 아프리카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 중

– 2018년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은 전년* 대비 300% 증가한 7억 2,56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며 가파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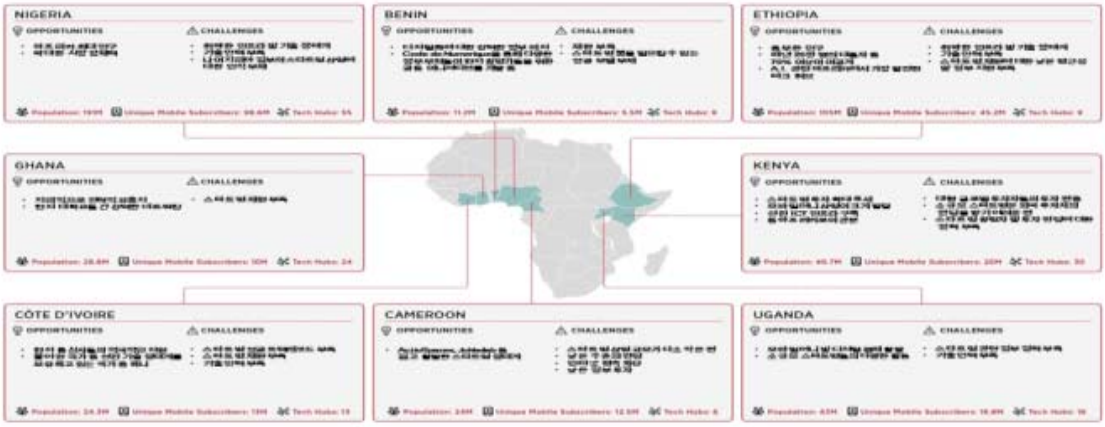
* 2017년 아프리카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억 300만 달러 수준

– 남아공이 59개로 1위, 나이지리아가 55개, 케냐가 30개를 보유해 동 3개 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아프리카의 스타트업들은 핀테크(FinTech) 분야, 농업 분야 기술 개발, 중소기업 창업, 헬스케어 등을 주목

– 특히, 핀테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 분야로, 2018년 아프리카 투자의 약 40%인 2억 8,469만 달러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집중

* 아프리카 핀테크 기업 수 '10년 32개 → '22년 1,073개 약 30배 증가 전망(Accenture)



기술·정책 관련 펀딩 시스템 등 경험에 입각한 진출전략 수립

○ 정부 간 한국의 스타트업 산업 육성 경험 이전을 통한 기술 인력 개발 및 신 성장 동력을 발굴 협력

–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보안, 게임·미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우리 스타트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현지 사정에 맞게 적정화하여 발전 필요

○ 독창성 및 기술 한계로 경쟁력이 부족한 현지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거나, 현지 엑셀러레이터들과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 모색

– 현지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실행 가능성과 성과 측정 후 개선하는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으로도 시장 진출 가능

○ 전통 ODA나 기부에서 탈피하여 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

주요 추진 사업 사례

① 2018년 케냐 스타트업 파트너링 지원 사업

○ (참가규모) 케냐 진출 관심 기업 31개사 46명, 케냐 기업 144개사 232명 등 총 260명
○ (사업내용) 국내기업 PT / 1:1 상담회 및 네트워킹 등
○ (주요 성과) 1:1 상담 90건, 계약추진액 3,118만 달러 달성, MOU 총 6건 체결

② 아프리카 혁신(Innovation)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대전

○ (일정/장소) '19.6.10-14/케냐 나이로비
○ (추진목적) 해커톤(공모전) 현지 개최를 통해 보건, 식량 안보 등 아프리카 사회문제에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신시장 개척 촉진
○ (기대효과) 1) 대(對)글로벌기업 기술 OEM 계약 체결, 2)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3) 투자유치 4)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엑셀러레이션(현지 창업화) 등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진출 시 유의사항

정치적 불안정성

- **(현황) 여러 국가가 민주화를 통해 정치적인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 불안 요인 상존**
  - (소요, 테러) 부족 간 갈등, 정부-반군 갈등, 무장단체 테러, 시위 소요사태 등 종종 발생
  - (정책 변화) 환율이나 진출 관련 정부 정책이 급작스럽게 변경될 리스크 존재
- **(대응전략) 정치변화(선거 일정, 정권교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선행 및 안정적인 국가에 우선 진출**
  - ☞ 비즈니스맨도 진출 대상국가의 정치·사회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에 우선 진출 후 성공사례를 가지고 인근 국가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

환전·송금 제한

- **(현황) 아프리카 각국 중앙은행의 대금 결제 지연 및 환전·송금 제약**
  - (외환부족) 우선 수입품목에 따라 외환이 할당되기도 하며 대금 결제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비용 부담도 발생
- **(대응전략) 바이어와 협의 시 결제 사항에 대해 명확한 협의를 통해 기업 피해 예방 필요**
  - ☞ T/T 또는 신용장 결제 등 조건에 결제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할 것(외화 확보 수수료도 수입상이 부담토록 명시)
  - ☞ 계약 체결 후 수출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L/C 개설 시작은 금액으로 PI를 나누어 수출대금을 조금씩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
  - ☞ 수단 경제제재의 경우 제3국 통한 T/T 가능 여부 등 바이어 역량 확인

외국기업에 불리한 제도

- **(현황) 불투명한 행정 시스템 및 부정부패, 자국기업 보호 정책 등 외국기업에 불리한 조건**
  - 외국기업에 대한 VAT 환급 지연, 회계 장부 비용 처리 불인정, 법인세 증가, 과도한 증빙 서류 등의 불리한 환경 속 공공연한 뇌물 요구 등 비합리적인 행정 처리
  - 무역분쟁 발생 시 현지법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국인에 불리
- **(대응전략) 현지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이해하고 전문가를 통해 분쟁 발생에 대비 필요**
  - ☞ 계약 체결 시 주요 사안에 대한 책임 명확화,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관할 법원, 중재위 포함) 등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
  - ☞ 역량 있는 현지 바이어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문제 발생 시 동반 해결

등록 및 통관 지연

- **(현황) 현지법 적용 시 제품 등록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며, 통관도 자주 지체**
  - 특히, 의료용품,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보건 안전 관련 제품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까다롭고 최종 등록까지 오랜 시간 소요
  - 제품 선적 후 진출국 항에 도착한 뒤에도 통관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비용 추가 발생
- **(대응전략) 등록 및 통관 경험이 풍부한 현지 업체 발굴**
  - ☞ 관련 분야 제품 등록 경험이 있는 바이어를 활용하면 서류 제출 시 시간을 절약 가능
  - ☞ 에이전트에 따라 통관 소요 시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사정에 밝은 통관업체를 선정하여 통관요구서류를 적시에 작성하는 등 소요 시간 단축 필요

취약한 유통구조	무역 사기 주의
■ **(현황) 열악한 사회 인프라로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소요** – 전반적으로 물류 인프라가 열악하여 물류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기업의 경우 특히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유통이 더 어려운 편 ■ **(대응전략) 수입업체와 물류비용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 ☞ 계약 시 물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유념하여 수입업체와 논의 ☞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회사인지, 일부 지역만을 담당하는 회사인지 계약 전 확인 필요	■ **(현황) 서류 위조, 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해킹, 대금 결제 거부 및 잠적 등 여러 가지 무역 사기 기승** – 선적 서류, 은행 서류, 신분증 등을 위조하고 제품을 갈취하거나 제품 수취 후 대금 결제를 거부 – 조달청 유사 기관을 사칭하며 허위 정부발주 사업으로 선금 입금 요청 ■ **(대응전략)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현지 대사관과 무역관에 사전 진위 확인 요청** ☞ 송금 전 무역관을 통해 업체 진위 및 사실관계 확인 ☞ 보수적 접근 및 무역 보험 가입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남아프리카공화국>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20%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218	대한수입액('18/US$백만)	1.18
	선정사유	구매력을 갖춘 신흥 중산층이 성장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퍼스널 그루밍(Personal Groom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시장동향	남아공 화장품 시장은 유통산업 250억 랜드, 제조산업 50억 랜드 규모로 추산되며,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전체 화장품 트렌드를 주도		
	경쟁동향	화장품 시장점유율의 90%는 글로벌 브랜드이며, 로컬 브랜드 제품 점유율은 10% 수준이나, 최근 K-beauty에 대한 주요 유통망의 관심 확대		
	진출방안	초기 진출 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시장 접근이 용이하며, 제품력을 기반으로 대형 유통망 PB 브랜드로 진출도 가능.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영문 패키징과 라벨링이 필수 요소로, 현지인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제품 보완 필요		
품목명 2	HS Code	9018, 9022	수입관세율(%)	0~20%
영상진단기기	수입액('18/US$백만)	717	대한수입액('18/US$백만)	9.16
	선정사유	공공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진단기기는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그 수요가 꾸준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NHI) 도입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 확대 예상		
	시장동향	시장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이 각각 20%씩 수입 시장을 점유		
	경쟁동향	Lodox Systems, GE Healthcare, Phillips, Siemens 등의 제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		
	진출방안	중국의 가격과 유럽의 품질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공공·민간 등 타깃 시장에 따라 현지 협력파트너를 구분하여 공략해야 함		
품목명 3	HS Code	3001, 3002, 3003, 3004	수입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18/US$백만)	2,353	대한수입액('18/US$백만)	2.6
	선정사유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최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으로, 가장 발달한 의약품 시장이자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시장동향	남아공 의약품 시장은 '18년 34.3억 달러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9% 꾸준한 성장 전망이고, 이 가운데 수입규모 23.5억 달러로 추산됨		
	경쟁동향	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입되며, 인도, 독일, 미국, 프랑스가 전체 수입시장의 65% 점유하고 있으며, 여러 다국적 제약회사가 남아공에 상주하고 있고, Pfizer, GlaxoSmithKline과 Sanofi는 현지 생산 공장 운영 중. 대표 현지 의약품 생산기업은 Aspen Pharmacare와 Adcock Ingram으로 주로 일반의약품 생산에 집중		
	진출방안	남아공 정부는 현지 생산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외국회사는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		

품목명 4	HS Code	3004	수입관세율(%)	0%
동물의약품	수입액('17/US$백만)	1,933	대한수입액('17/US$백만)	2
	선정사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대 반려동물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의료 서비스, 보험 등 연계 산업 발달		
	시장동향	남아공 반려동물 관련 제품시장은 '19년 1,30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중산층 확대와 '펫 휴머나이제이션' 트렌드 확산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		
	경쟁동향	대부분의 동물의약품은 유럽국가로부터 수입		
	진출방안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식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보유 여부가 중요하므로, 현지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적격 유통업체 발굴 및 협력이 중요함		
품목명 5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30%
자동차 부품	수입액('18/US$백만)	1,524	대한수입액('18/US$백만)	37.3
	선정사유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최대 수요처로, 자동차 내수시장이 다소 주춤하나 '18년 기준 판매 55만대 기록		
	시장동향	최근 자동차 수요모델 다양화, 기술 복잡화 등으로 인해 A/S 부품 수요도 다양화 및 확대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 튜닝, 액세서리 등 수요도 정착 단계		
	경쟁동향	중국, 독일, 미국, 일본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며, 최근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수입 비중이 가파른 상승세		
	진출방안	A/S 부품은 종류와 특성에 따라 가격, 품질 등 민감도 차이가 크므로, 타깃 수요층에 따른 전략수립이 중요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교민기업이 운영 중이므로 초기 진출 시 협업 가능		

<나이지리아>

품목명 1	HS Code	3902	수입관세율(%)	5
합성수지	수입액('18/US$백만)	315	대한수입액('18/US$백만)	70
	선정사유	폴리프로필렌 등 한국산 최대 수출품목		
	시장동향	한국산이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경쟁동향	서유럽산, 인도, 중국산이 치열하게 경쟁 중		
	진출방안	가격 경쟁력 유지가 관건		
품목명 2	HS Code	7606	수입관세율(%)	5~35
알루미늄	수입액('18/US$백만)	101	대한수입액('18/US$백만)	29
	선정사유	한국산이 최대 수입국을 유지하는 품목		
	시장동향	현지 생산이 대부분이며 일부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포르투갈, 독일, 인도산이 나머지 시장 분할		
	진출방안	품질 경쟁력 유지가 중장기적 관건		
품목명 3	HS Code	8703	수입관세율(%)	35
승용차	수입액('18/US$백만)	1,030	대한수입액('18/US$백만)	19
	선정사유	현대차 중심 한국산 인기 고조		
	시장동향	현지 조립생산 확대, 2015년 이후 안정세		
	경쟁동향	일본산, 미국산이 최대 경쟁국		
	진출방안	소형차 중심 젊은 층 대상 공략강화		

품목명 4	HS Code	8507	수입관세율(%)	20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액('18/US$백만)	59	대한수입액('18/US$백만)	17
	선정사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인기		
	시장동향	완성차 진출 확대에 맞춰 부품 수요 점증		
	경쟁동향	저가형 중국산이 최대 시장 점유		
	진출방안	한국산 및 유럽산 위주로 현지 생산 유망		
품목명 5	HS Code	8517	수입관세율(%)	5
휴대폰	수입액('18/US$백만)	472	대한수입액('18/US$백만)	1
	선정사유	중국산 저가품을 제외하면 한국산이 최대 인기		
	시장동향	삼성, 엘지가 고급품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음		
	경쟁동향	우리 기업들과 애플의 경쟁 치열		
	진출방안	저가품 위주 신규진출도 유망		
품목명 6	HS Code	8415	수입관세율(%)	5-35
가전제품 (에어컨)	수입액('18/US$백만)	130	대한수입액('18/US$백만)	4
	선정사유	가전제품 전체가 한국산의 독주 시장 부상		
	시장동향	백색가전 전체 시장에서 한국산 인기 독보적		
	경쟁동향	한국산은 중국산과 경쟁 중		
	진출방안	신제품, 신기술 위주의 진출 추진 필요		

<케냐>

품목명 1	HS Code	930600	수입관세율(%)	0%
포탄류	수입액('18/US$백만)	56	대한수입액('18/US$백만)	4.87
	선정사유	소말리아의 테러집단 소탕전을 펼치면서 소말리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인도양 해안의 몸바사, 말린디, 라무 지역 등의 잦은 테러 사태로 인해 해안 경비 강화 노력 지속 중		
	시장동향	2016년 534만 달러 수준에서 2017년 1,885만 달러, 2018년 5,606만 달러로 무려 3배나 증가. 소말리아와의 대(對)테러전이 지속되는 동안 꾸준한 수요가 예상됨		
	경쟁동향	중국산이 2,753만 달러 규모로 총 수입규모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불가리아산 수입이 없다가 2018년에 838만 달러가 수입됐고, 한국은 2016년까지 없었으나, 2017년 520만 달러, 2018년 487만 달러를 수출		
	진출방안	현지 에이전트 발굴		
품목명 2	HS Code	650610	수입관세율(%)	0%
방탄모	수입액('18/US$백만)	5.20	대한수입액('18/US$백만)	-
	선정사유	그동안 중국산 방탄헬멧을 사용해 왔으나 소말리아 파병군들이 실전에서 방탄효과가 없어 피해가 너무 커, 수입국을 교체하려는 상황		
	시장동향	2017년 수입규모가 755만 달러였고, 2018년에는 520만 달러로 감소했으나, 2019년 1~6월에 36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경쟁동향	2018년 수입국은 인도(181만 달러), 요르단(134만 달러), 중국(84만 달러)로 중국산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국산도 진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진출방안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케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가격과 방탄효과이므로, 한국은 중국산보다는 좀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방산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인 신뢰성 확보를 역점에 두고 접근 필요		

품목명 3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0%
초음파 진단장비	수입액('18/US$백만)	14.4	대한수입액('18/US$백만)	1.2
	선정사유	정부의 공공보건위생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각 지방 정부들이 해당 지역 도심에 중소규모 병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중소형 진단 장비 수요도 증가할 전망		
	시장동향	케냐 정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국립, 지방 병원에 의료 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글로벌 브랜드 5개 정도의 현지 에이전트들이 정부와 대여 사업을 진행 중		
	경쟁동향	고가 의료 장비의 경우는 미국(GE), 네덜란드(Philips) 등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진출방안	우리 제품의 경우 현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점이 진입 장벽으로 파악되지만, 현지 유력 이에전트를 잘 발굴하여 제품 홍보와 함께 정부 조달 시장을 통해 진출하면 중저가 보급형 진단 장비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품목명 4	HS Code	842900	수입관세율(%)	0%
건설기계류	수입액('18/US$백만)	134.5	대한수입액('18/US$백만)	6.2
	선정사유	케냐는 약 14000km 구간의 전국 도로포장 및 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몸바사-나이로비 간 2차선에서 6차선 확장공사, 표준궤 철도공사 2단계인 나이로비-나쿠루 간 공사 등 꾸준한 대규모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시장동향	2018년 총수입 약 1억 3,45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7년 1억 6,165만 달러 대비 약 17%가 감소했고, 한국산은 2017년 476만 달러 대비 2018년 618만 달러로 증가 추세이며, 케냐 시장규모가 큰 편이어서 우리기업의 진출 여지는 열려있음		
	경쟁동향	중국 제품 점유율이 약 54%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뒤이어 인도와 일본 제품이 약 1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한국은 2017년 3% 수준에서 2018년 4.6%로 확대됨		
	진출방안	현지 건설사들과 합작 또는 현지 건설사 장비 공급 수입상 발굴 등		
품목명 5	HS Code	190200	수입관세율(%)	25%
라면류	수입액('18/US$백만)	16.2	대한수입액('18/US$백만)	0.46
	선정사유	케냐의 면류 수입은 2016년 1,100만 달러, 2017년 1,700만 달러, 2018년 1,620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세에 있음(*해당 통계치는 HS 1902로 분류되는 파스타, 스파게티, 라자냐 등을 포함하는 면류에 한함). 2018년 한국소비재 대전 개최 이후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형성되고 있음		
	시장동향	Euromonitor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케냐 내 면류의 수요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소비규모가 약 9500만 달러에 달하고, 이 중 면류의 수입량은 약 34% 정도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현지 생산 공급인 것으로 파악되며, 현지 파스타 및 즉석 라면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최근 5년 내 3개의 현지 제조 브랜드가 생겨났고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있는 추세임		
	경쟁동향	두바이산 Indomie가 시장의 약 2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Bidco Africa, Kapa Oil Refineries 등 로컬 식용유 제조사들이 즉석 라면 시장에 진출하여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중으로, 특히, Nissin은 케냐의 국립대학교인 조모케냐타농공대(Jomo Kanytta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와 제휴를 통해 저가 상품을 판매 중		
	진출방안	케냐의 경우 수입 에이전트의 영향력이 강하며 대형유통망은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는데, 주로 까르푸나 나쿠마트 등의 대형유통망을 통해 전시·판매되고 있어, 우리의 제품이 진출하려면 이런 대형유통망에 조달 경력이 있는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탄자니아>

품목명 1	HS Code	382200,901890	수입관세율(%)	0
진단용/실험용시약 및 진단기기	수입액('18/US$백만)	46,50	대한수입액('18/US$백만)	17,0
	선정사유	말라리아, 결핵 등 빠른 진단과 간단한 조치만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이 만연해 있어 국제기구 등의 지원 수요 지속		
	시장동향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탄 정부 및 국제기구의 보건사업으로 진단기기 수요 높음, 진단기기 보급 후에는 소모성 제품인 진단 시약 수요 지속 발생		
	경쟁동향	업계 내 유수기업 간 경쟁 치열		
	진출방안	공공조달시장 참여, ODA 프로젝트 활용		
품목명 2	HS Code	870323	수입관세율(%)	25
자동차부품	수입액('18/US$백만)	72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소득증대는 자가용 보유량 증대로 이어져, 자동차 부품 수요 동반 증가. 또한,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부품의 마모율 높아 부품 교체주기 높은 편		
	시장동향	탄자니아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90% 이상이 일본산 신·중고차 점유 중이나 자동차 부품은 값싼 중국 제품, 인도 제품이 주로 거래되며 일부 고급 부품 수요 존재		
	경쟁동향	시장의 지속적 성장으로 경쟁 심화하는 추세		
	진출방안	가격민감성 높아 가격 경쟁력 최우선		
품목명 3	HS Code	390120	수입관세율(%)	0
폴리에틸렌 및 기타화학제품	수입액('18/US$백만)	75	대한수입액('18/US$백만)	3
	선정사유	한국 제품 수입은 '16년 이후 빠른 증가세 보이며, 산업화 수요와 맞물려 수입량 증가 예상		
	시장동향	정부 주도 준산업국가 진입을 목표로 PVC 등 산업 수입 수요 많으며, 화학제품은 주로 수입 의존		
	경쟁동향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주요 수입국이며, 그 뒤를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고, 인도 제품 수입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진출방안	석유·정밀화학의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적정 가격이 뒷받침 된다면 경쟁력 높음		
품목명 4	HS Code	842240	수입관세율(%)	0
열수축 포장기계	수입액('18/US$백만)	8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자국 생산 농산물의 가공·포장 공정을 자동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 추진 중으로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전량 수입의존		
	경쟁동향	포장기계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탈리아, 독일 업체의 점유율 높고, 그 뒤를 인도와 중국의 저가형 기계가 잇고 있음		
	진출방안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추는 방식으로 시장 진출 필요		
품목명 5	HS Code	470730	수입관세율(%)	0
OINP	수입액('18/US$백만)	0.6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포장용 재료의 사용이 증가		
	시장동향	OINP(Over Issued Newspaper)는 그 자체로도 사용될 뿐 아니라 종이봉투, 박스 등을 제조하는 재료로 쓰여 최근 수요가 높음		
	경쟁동향	종이의 질이 좋아 한국 제품 수요 높음		
	진출방안	적격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품목명 6	HS Code	852580	수입관세율(%)	0
CCTV	수입액('18/US$백만)	4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안전 확보를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CCTV 및 관련 보안장비 등의 진출 유망		
	시장동향	치안불안으로 사설 경비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고 CCTV 등 첨단 보안장비도 사용도 증가		
	경쟁동향	저가 중국 제품과 고품질 고가의 유럽, 미국 제품의 가격의 양분화 현상		
	진출방안	탄자니아 바이어는 수입 고려 시 품질 대비 가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경쟁력 있는 가격제시 필요		

<수출유망품목(수단)>

품목명 1	HS Code	8708 등	수입관세율(%)	10% 내외
자동차 부품	수입액('18/US$백만)	2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20 (HS8708 등)
	선정사유	한국산 승용차 기준 차량점유율 60% 이상, 높은 노후차 비중,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수요 높은 상태		
	시장동향	조립생산용, After 마켓용, 신품, 중고품 시장 다양하게 분포, 한국산 브랜드 다수 진출, 경쟁 상태		
	경쟁동향	수단 국내산, 한국 ,중국, 터키, UAE산 경쟁 심화		
	진출방안	면대면 상담 선호 감안, 두바이 등 인근국 유명 전문전시회,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유력 파트너 발굴		
품목명 2	HS Code	8431 등	수입관세율(%)	0~10%
Mining(광물) 장비, 화학제품	수입액('18/US$백만)	1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21 (HS8431 등)
	선정사유	수단 정부 및 기업, 2011 남수단 분리(유전 상실)후 석유 대체 수익원 확보 위해 광산개발에 박차, 금(아프리카 3위 생산) 등 생산 위한 탐사, 채굴, 운반 장비, 정밀화학 제품 수요 증가세		
	시장동향	광산장비, 화학 제품 수입 급격한 증가세, 전량 수입 의존		
	경쟁동향	한, 중 및 UAE 등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 터키산 등 경쟁		
	진출방안	광업, 무역관련 정부승인 유력 에이전트와 파트너십 필수		
품목명 3	HS Code	9018 등	수입관세율(%)	0~10%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액('18/US$백만)	6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9 (HS9018 등)
	선정사유	주사기 등 일부 소모품 제외한 전량 수입 의존, 진단기기, 소모품, 기기에 걸쳐 중국산 불신, 한국, 유럽산 선호		
	시장동향	獨, 日, 인도산 중심,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증가세		
	경쟁동향	수입시장점유율은 인근국인 사우디, UAE 등 인근국 경유 수입과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순		
	진출방안	두바이 등 인근국 전시회, 현지출장 통한 유력 파트너 발굴		
품목명 4	HS Code	8431 등	수입관세율(%)	0~10%
건설 중장비 및 부분품	수입액('18/US$백만)	1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3 (HS 8431 등)
	선정사유	도시화 진전으로 건설중장비 수요 꾸준, 전량 수입 의존		
	시장동향	현대, 두산 기 진출, 한국산 인지도 높지만 여전히 가격 중시		
	경쟁동향	Attachment류의 경우 중국산 점유율이 월등히 높고, 이외 UAE,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터키, 미국산 등 경쟁 중		
	진출방안	정부와의 네트워크, 결제 역량 면에서 유력 에이전트와 협력		
품목명 5	HS Code	3901-3904, 3907 등	수입관세율(%)	3%
기초플라스틱 원료	수입액('18/US$백만)	2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2 (HS 3907 등)
	선정사유	생활용품, 가구, 파이프, 포장재 등 저가의 기초 플라스틱 제품 사용되고 있으나 관련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시장동향	수단 유일 플라스틱 원료 제조사인 Khartoum Petrochemical이 일부 공급, 나머지는 수입 의존,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인근 아랍권 국가와 한, 중, 대만산 등 아시아 제품이 경쟁 중		
	진출방안	중동산과 경쟁 위해 수단 표준협회(SSMO) 등록 외, 경쟁력 있는 가격, 결제조건 제시 및 현지화 필요		

<모잠비크>

품목명 1	HS Code	252310	수입관세율(%)	7.5
시멘트 크링커	수입액('18/US$백만	57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건설업 경기 회복		
	시장동향	모잠비크 건설 경기 회복으로 시멘트 수요 크게 증가		
	경쟁동향	베트남, 이란, 포르투갈, 스페인, 인도 등		
	진출방안	현지 시멘트 제조업체 대상 적극적인 마케팅		
품목명 2	HS Code	870899	수입관세율(%)	7.0
자동차부품	수입액('18/US$백만	25	대한수입액('18/US$백만)	0.3
	선정사유	국산차 판매 증가로 국산 부품 수요 동반 상승세		
	시장동향	운행 중인 차량 노후화로 A/S 부품 수요 다대		
	경쟁동향	남아공, 중국, 일본, 포르투갈, 미국 등		
	진출방안	경쟁국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품목명 3	HS Code	390120	수입관세율(%)	2.0
플라스틱 원료	수입액('18/US$백만	9	대한수입액('18/US$백만)	1.4
	선정사유	현지 제조시설이 있어 원료 수입수요 있고 국산제품 경쟁력 보유		
	시장동향	현지 경기 회복으로 플라스틱 제품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프랑스, 인도, 남아공 등		
	진출방안	현지 제조업체 구매정책 파악 및 마케팅		
품목명 4	HS Code	850421	수입관세율(%)	5.0
변압기	수입액('18/US$백만	3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송배전 효율성 향상 변압기 수요 증대		
	시장동향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경쟁동향	남아공, 인도, 포르투갈, 중국, 이탈리아		
	진출방안	발주처 네트워크 구축 및 유망 에이전트 발굴		
품목명 5	HS Code	870323	수입관세율(%)	20.0
승용차	수입액('18/US$백만	30	대한수입액('18/US$백만)	1.4
	선정사유	국산 자동차 수요 증가세		
	시장동향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으로 시장 수요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일본, 유럽 등		
	진출방안	현지 유력 딜러십 확보		

<가나>

품목명 1	HS Code	620920	수입관세율(%)	20
순면 유아용 의류	수입액('17/US$백만)	1.08	대한수입액('17/US$백만)	N/A
	선정사유	- 가나의 출산율은 2.39명으로 한국 평균(0.97명) 대비 2.3배 - 영유아 제품 및 의류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품질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이 적음		
	시장동향	-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아용 의류의 저가의 중국 또는 고가의 유럽 제품임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아용 의류는 수입액 중 80%을 차지하지만, 그 품질이 나쁘고, 특히 순면제품의 수요가 높은 유아의류 시장에서 현지인들은 가격		

		때문에 중국제를 택함		
	경쟁동향	-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과 남아공이며, 중국산 제품이 전체 시장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은 압도적이고, 이 외 태국, 토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 또는 아시아 국가에서 유아의류 수입이 이루어짐		
	진출방안	- 중국산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가격이므로 품질이 높은 순면제품으로 수출하되 가격 설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2	HS Code	670420	수입관세율(%)	20
	수입액('17/US$백만)	2.19	대한수입액('17/US$백만)	0.36
인모 가발	선정사유	- 모발이 동양인 또는 유럽인과 달리 심한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머리를 단정하게 기르기 어려움 - 가나 여성들에게 긴 머리는 하나의 선망이며 헤어 스타일은 자신의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		
	시장동향	- 중산층의 증대와 여성들의 미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비싸지만 자연스러운 헤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인모 가발을 선호 - 가발 수입액은 2017년 219만 달러에서 2018년 24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		
	경쟁동향	- 주요 경쟁국은 중국, 토고, 일본, 나이지리아 등 주변국 또는 아시아 국가이며,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액수가 79% 급증하여 30%의 시장점유율 확보		
	진출방안	-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타 온라인 쇼핑몰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상세사진 및 정보를 포함하고 한국의 CS 마인드 진출전략을 도입한 온라인 쇼핑몰로 온라인 시장 내 경쟁력 확보 - Acrra Mall, Palace Mall 등 대형 쇼핑몰에 있는 가발 전문점에 소규모 입점하는 방식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		
품목명 3	HS Code	392410	수입관세율(%)	20
	수입액('17/US$백만)	16.52	대한수입액('17/US$백만)	0.28
플라스틱 주방용품	선정사유	- 가나 현지 내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공산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 특히 자주 쓰이는 가정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기본적인 용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보다 2~5배 이상 비쌈		
	시장동향	- 2017년 플라스틱 주방용품의 수입액은 1,1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 성장		
	경쟁동향	- 시장 내 중국, 인도의 점유율은 약 86%일 정도로 압도적이고, 중국과 인도는 수입액이 각각 840만 달러, 1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 38% 성장함 - 우리나라는 16위로 큰 수입대상국임		
	진출방안	- 구매력이 큰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쇼핑몰에 오프라인 매장을 입점함 - 리빙 앤 라이프스타일 전문점에 입점하여 트렌드에 민감하며 주고객층인 주부층 겨냥		
품목명 4	HS Code	870110	수입관세율(%)	5
	수입액('17/US$백만)	130.56	대한수입액('17/US$백만)	0.83
트랙터	선정사유	- 가나의 농업은 주요 산업이나 낙후된 농업 기술력으로 여전히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인력으로 농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나 농가에 기계 도입이 시급		
	시장동향	-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비용 문제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수입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유망 상품으로 분류 가능		
	경쟁동향	- 주요 수입대상국은 영국, 벨기에, 중국, 네덜란드, 스페인으로 모두 농업이 발달한 나라이고, 5대 수입대상국은 전체의 76%이며, 영국은 2,060만 달러를 수출하여 그 비율은 40% - 우리나라는 16위의 수입대상국임		

	진출방안	- 비용 문제로 구매가 어려운 농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 또는 월 렌탈 사업을 진행함 - 직접적인 현지 시장 진출이 어려울 경우 가나 농업 관련 기관과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추천		
품목명 5	HS Code	870830	수입관세율(%)	5
자동차 부품	수입액('17/US$백만)	46.58	대한수입액('17/US$백만)	3.29
	선정사유	- 한국산 차체, 외부 부품 등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의적 인지도와 높은 수요		
	시장동향	- 현지인들은 비용 문제로 자동차가 고장 날 때 직접 부품 시장에서 구매하여 고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UBER, Yango 등 승차공유 서비스 종사자가 급증하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경쟁동향	- 주요 수입대상국은 벨기에, 중국, 아랍에미리트, 남아공으로, 상위 5위 수입액은 전체의 약 54% - 한국은 수입대상국 5위 - 타제품과도 호환 가능한 중국산 브레이크, 핸들, 페달 등이 경쟁품목		
	7진출방안	- 전시회, 박람회에서 한국관 부스 운영으로 현지 바이어들을 만나는 것이 좋음 - 가나의 자동차 부품 시장은 현지 오프라인 시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한 다양한 진출 루트를 모색해야 함		

<코트디부아르>

품목명 1	HS Code	6309	수입관세율(%)	40.5
중고의류	수입액('18/US$백만)	27.5	대한수입액('18/US$백만)	1.6
	선정사유	구매력 문제로 중고의류에 대한 수요 증가, 최근 패션산업으로도 자리매김		
	시장동향	한국산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가나, 중국, 영국, 프랑스 제품 수입 꾸준		
	진출방안	다른 산업에 비해 가격의 구애를 크게 받지 않음(중고제품 자체가 저가). 품질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시장진출 모색		
품목명 2	HS Code	3901	수입관세율(%)	25.5
플라스틱 원료	수입액('18/US$백만)	150.4	대한수입액('18/US$백만)	4.4
	선정사유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		
	시장동향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미국, 싱가포르, 스페인		
	진출방안	현지 제조업체와이 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모색		
품목명 3	HS Code	8528	수입관세율(%)	7.5~22.5
전기/전자제품	수입액('18/US$백만)	34.3	대한수입액('18/US$백만)	164
	선정사유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		
	시장동향	자체생산이 없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저렴한 중국산 중고제품이 끊임없이 유입		
	진출방안	가격경쟁력 확보, 유력 바이어 네트워킹 중요		
품목명 4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30.5
자동차부품	수입액('18/US$백만)	31.9	대한수입액('18/US$백만)	999.8
	선정사유	노후차량이 많아 차량부품 수요가 많음		
	시장동향	가격에 민감하여 질이 나빠도 저렴한 제품 선호		

	경쟁동향	중국 제품 다량 유입		
	진출방안	좋은 한국 제품 인지도를 활용하여 진출		
품목명 5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5
	수입액('18/US$백만)	24.7	대한수입액('18/US$백만)	145.8
	선정사유	양질의 의약품 부족으로 수입산 수요 증가		
의약품	시장동향	의약품 수요 꾸준		
	경쟁동향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레바논 등		
	진출방안	보건의료 분야 협력 사업을 통한 공적시장 진출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분야 1		
의료	선정사유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남아공 의료시장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소득향상에 따라 수요 다양화
	시장동향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최대 의료시장인 동시에, 국민건강보험(NHI) 도입 및 비전염성 질환 확대 등 신규 시장 수요가 성장했고, NHI의 도입은 공공보건 시스템에 대한 민관 투자확대로 연계 기대
	진출방안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생산 또는 기술 이전 계약,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시장 진출 가능. 흑인 소유의 현지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이전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
분야 2		
ICT	선정사유	남아공은 타 아프리카 국가 대비 발달한 IT 기술 및 인터넷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시스템 전산화 및 스마트시티 개발 필요성 강조
	시장동향	남아공 IT 시장 규모는 2019년 918억 랜드로 역내 최대 규모 중 하나이며, 광대역 등 통신망 설치 환경도 우수
	경쟁동향	중국은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 관계 하에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주요 프로젝트 선점 우위
	진출방안	민원시스템 전산화, IoT 접목한 생활 SOC 확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 선진기술 접목 분야를 중심으로, 보안용 CCTV, 도어락, 스마트카드 등 소형기기 분야를 시작으로 진출 가능
분야 3		
인프라	선정사유	금년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안정에 따라 산업화 정책 및 연계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시장동향	남아공 건설 시장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인프라 육성 노력 지속. 산업정책행동계획(IPAP)을 통해 자동차·의류 등 제조업 기반 구축 및 현지조달 강화를 추진하고, 에너지·교통(도로, 철도 등)·주택 등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경쟁동향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 건설기업에서 적극 투자하는 추세
	진출방안	한국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확실한 A/S 제도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흑인경제육성법(BBBEE) 등 남아공 정부의 현지 조달 강화 기조에 맞춰 역량있는 현지 파트너를 발굴, 협력을 통한 수주 경쟁력 확보 필요
품목명 4		
콘텐츠	선정사유	전 세계적인 K-Pop 열풍에 힘입어 남아공 내에서도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층이 확대되면서, 문화콘텐츠 외에도 의류, 문구류 등 파생 상품 수요 증가
	시장동향	남아공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10억 달러로 추산,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나 '16~'21년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진출방안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생활용품 등 연계상품을 접목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 동반 진출 모색

<나이지리아>

분야 1		
의료	선정사유	나이지리아 병원 및 의료 시스템 낙후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급증(연간 3만 명이 의료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감) - 의료관광으로 매년 최소한 10억 달러 이상 지출
	시장동향	제대로 된 국내 의료설비가 없고 병원이 태부족하며, 관련 시스템, 인력, 서비스 등 전반의 수요가 다대(종합병원 및 민간병원 2,600개에 불과)
	경쟁동향	영국, 미국, 인도, UAE 등지로 의료관광 증가하고 있어 의료분야 서비스 틈새시장을 노리고 나이지리아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 의료기기 수입대상국 : 중국, 독일, 인도, 프랑스, 미국 의약품 수입대상국 : 인도, 중국, 스위스, 영국
	진출방안	우리기업이 진출한 라고스를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병원 진출 시, 의료서비스의 높은 품질과 첨단설비 등으로 큰 호응이 예상됨
분야 2		
관광	선정사유	항공 관광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발, 육성지원을 위한 의지가 강함
	시장동향	나이지리아 정부의 항공·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투입 증대
	경쟁동향	항공 산업의 경우, 남아공, 에티오피아 등이 활발히 영업활동 추진, 전통적인 영국, 프랑스, 독일, UAE 등은 점차 경쟁력 약화
	진출방안	비즈니스와 연계한 관광 수요 발굴 또는 현지 낙후 의료환경과 연계한 Medical Tourism 등 복합관광 상품 개발
분야 3		
정보/통신 서비스	선정사유	정보통신 특히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이 급성장 중
	시장동향	나이지리아 실물경제 성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 TV 홈쇼핑 등)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통신산업·정보서비스·컴퓨터 분야 예산투입은 170억 달러 규모
	경쟁동향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남아공(MTN), 인도(Airtel) 등의 진출이 활발, 여타 서비스는 유럽이 강세
	진출방안	정보통신 분야의 나이지리아 전시회 참가 및 현지 ICT 설립을 통한 현지화 추진

<케냐>

분야 1		
의료	선정사유	케냐는 HIV, 말라리아 등 열대풍토병 퇴치에 관심이 지대하며, 중산층 확대에 따른 개인병원, 예방을 위한 종합검진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 정부별로 공립병원을 추가 신설하고 있어 관련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요가 기대됨
	시장동향	2016년 초부터 케냐 정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국립, 지방 병원에 의료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 글로벌 브랜드 5개 정도의 현지 에이전트들이 정부와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의약품 분야도 전통적으로 일반의약품은 인도가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해 왔으나 최근 한국산 항생제가 현지에 진출하는 등 현지 의약품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리고 있음
	경쟁동향	고가 의료장비의 경우는 미국(GE), 네덜란드(Philips), 병원실험장비 등은 독일(Braun), 의약품류는 인도 (항생제 분야 약 60% 시장점유) 등 임.
	진출방안	신설되는 지방도시 국립병원에 중소형 진단 장비, 시약, 일반의약품, 병원용 소모품 등의 공급을 시도할 수 있으나, 정부 의료기기 및 의료품 공급은 KEMSA를 통해 1년에 2번 정도 구매하므로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발굴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분야 2		
교통인프라 (통합 교통통제 시스템)	선정사유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는 독립 전에 설계된 도시교통 시스템이 낙후되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월 400만 달러 이상
	시장동향	케냐 정부는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의 자금지원으로 경전철, 도심 대중교통 현대화 등의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 케냐의 핵심 도시인 나이로비와 몸바사에 지능형 종합 교통통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제 공여기관들을 통해 원조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경쟁동향	일본은 JICA 자금으로 나이로비 도시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행했으며, 독일 Siemens사가 현지 사파리콤(이동통신사)과 합작으로 나이로비 통합교통통제 시스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고, ITS의 실제 사업은 세계은행과 수출입은행 경협 자금으로 진행 중
	진출방안	나이로비 종합교통개발 프로젝트는 한국의 경협자금으로 일부 추진 되는바, 지능형 종합 교통통제 시스템에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력
분야 3		
e-러닝사업	선정사유	케냐의 인터넷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원거리 교육, 디지털 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가 중이나, 현실적으로는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온라인 콘텐츠 개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하드웨어 공급 등의ㅍ 작업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이 분야 진출기회가 열리고 있음
	시장동향	케냐 정부는 2016년에 정부 사업으로 케냐 초·중·고를 대상으로 보급형 태블릿을 공급하였으며, 케냐교과과정개발청(KICD)은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작업을 진행 중
	경쟁동향	미국의 IBM은 케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외에도 미국, 인도 등의 스타트업이 케냐에 진출하여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시도 중
	진출방안	한국의 한 스타트업은 맹인들을 위한 점자시계를 현지 상황에 점목, 맹인교육용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e-러닝 전문 중소기업은 컴퓨터 없이도 디지털 교육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 보급을 시도 중
분야 4		
사이버보안	선정사유	케냐 중앙은행은 2017년 말까지 모든 은행이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갖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각 은행 및 관련 기관들은 사이버보안 솔루션 제안서를 작성 중이며, 2018년부터는 사이버보안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는 중
	시장동향	이미 각 은행은 자체적인 사어버보안 시스템 및 e-뱅킹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수준의 보안솔루션이 전무하고, 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관련 시장 수요가 증가할 전망
	경쟁동향	케냐의 신생기업인 e-Biashara는 이러한 흐름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정부 기관과 금융기관, 관련 민간기관을 초청하여 One-stop 사이버보안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현지 유력 사업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 중
	진출방안	e-Biashara와 같은 현지 보안솔루션 기업과 합작으로 시스템 개발, 기술지원, 관련 장비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 접근이 유리하며, 보안시스템 성격상 2018년 초기 시장 진입 및 선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분야 5		
건설분야 설계감리	선정사유	동아프리카 내에 총 43개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케냐가 주도적으로 인프라 건설 중
	시장동향	특히, 라무-남수단-이티오피아를 연결하는 라무항종합건설 사업, 몸바사-나이로비-우간다-르완다 등을 연결하는 북부유통망 건설 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고속도로, 신도시, 신공항 공사 등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예정
	경쟁동향	중국, 일본 등은 정부-정부가 유-무상 협력자금으로 표준궤철도건설, 핵심 도로건설, 몸바사 화물터미널 확장공사, 라무항 3선석 시공 등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며, 우리기

		업은 시공보다는 국제개발은행 펀드가 뒷받침되는 인프라 사업의 감리·설계 분야에 수주기회가 있음
	진출방안	우리기업은 국제개발기금으로 시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설계감리 사업 등을 노려볼 만하며, 그 외 중소규모의 EDCF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이 가능
	유망국가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탄자니아>

분야 1	선정사유	모바일 이용자의 급증 및 모바일머니 이용의 빠른 확산으로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모바일결제 및 금융서비스	시장동향	4년간 220% 증가
	경쟁동향	모바일머니의 경우 Vodacom, Tigo, Airtel 등 경쟁적 시장 조성되어 있음
	진출방안	현지의 통신사업자와 협업으로 기존의 네트워크 활용, 새로운 부가서비스 제공
품목명 2	선정사유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다수 프로젝트 추진 중 대규모 SOC 건설프로젝트의 발주 지속 예상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동향	연 13% 증가
	경쟁동향	주로 해당 프로젝트 차관 공여국의 기업 간 경쟁. AfDB, World Bank 등으로부터 재원 확보 시, 국제입찰을 통한 경쟁
	진출방안	EDCF 프로젝트 통한 시장 초기 진출,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바탕으로 그 외 프로젝트 입찰 참여
품목명 3	선정사유	빠르게 확산된 인터넷·모바일 환경에 비해 보안이 매우 취약하여 인터넷·모바일 범죄·사기 신고 건수 증가하고 있음
IT보안서비스	시장동향	은행은 자체 보안시스템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나,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문제 심각, 통신사들의 경우 고객들에게 주의만 주고 별다른 조치 취하고 있지 않음
	경쟁동향	유럽 및 이스라엘 기업 진출이 활발
	진출방안	TCRA 등 정부조직과 주요 부처, 기간 시설에 대한 보안서비스 자문. 혹은 모바일 금융, 모바일 결제로 보안에 대한 관심 높아진 은행 및 통신사와 협력

<수단>

분야 1		
IT 솔루션	선정사유	재무회계, 관세 행정 분야 전자정부 추진 수요, 전자신분증, Debit 카드 도입 확대 계획 존재
	시장동향	외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중소형 프로젝트 중심 추진
	경쟁동향	두바이,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및 유럽계 기업 진출 활발
	진출방안	관련 정부기관 프로젝트 정보 파악 및 현지 출장, 면대면 상담을 통해 관련 정부 및 유력 벤더와 파트너십 추진
분야 2		
인프라,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링	선정사유	각종 제조공장, 철도, 전력(발전, 송배전), 신공항, 수처리, 소각로 건설 프로젝트 존재, 한국 건설, 엔지니어링사의 우수한 이행 능력 인지
	시장동향	열악한 외환, 재정 부족에 따른 정부 예산 제약,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서방으로부터 파이낸싱, 차관 제약, AfDB 등 일부 MDB 또는 중국, 아랍계 차관에 의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자체 파이낸싱 통해 공장 신축 확장 추진, 한국기업 도로, 공항 엔지니이링 참여 이력 보유

	경쟁동향	2천년대 초까지 중국 진출이 활발했으나, 남수단 독립 후 석유 감산으로 중국 진출 감소, 터키 기업 등과 경쟁
	진출방안	중국, 아랍권 차관, MDB 파이낸싱, 민자 프로젝트 니치 시장 공략, 현지 유력 건설엔지니어링사와 제휴 필요

<모잠비크>

분야 1		
소프트웨어	선정사유	ICT 산업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시장동향	기업 전산화, 전자정부 정책 추진으로 수요 확대
	경쟁동향	독일 등 유럽제품이 시장 장악
	진출방안	기술인력 양성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제시
분야 2		
건설	선정사유	모잠비크 건설 경기 회복세
	시장동향	전반적인 경기회복, SOC 프로젝트 추진으로 경기 회복세
	경쟁동향	포르투갈, 중국 등
	진출방안	유무상 원조 등 정책지원 활용한 시장진출
품목명 3		
플랜트	선정사유	천연가스 개발 등으로 관련 플랜트 시장 확대
	시장동향	비료, 화학 플랜트, 발전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경쟁동향	남아공, 독일, 일본 등
	진출방안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가나>

분야 1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 만성적인 의료 시설 및 병원 운영 역량 부족
	시장동향	- 현재 KOICA, KOFIH 등에서 한인 의사들이 파견되어 현지인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
	경쟁동향	- 미국의 NGO 단체에서 의료 사업을 진행
	진출방안	- 병원의 설비부터 경영까지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 관리를 한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출
분야 2		
온라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선정사유	-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머니 시장 급성장
	시장동향	- 가나는 스마트폰 보급률 서아프리카 내 1위 국가로 잠재성이 큼
	경쟁동향	-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은 현재 나이지리아에 본사를 둔 Jumia가 유일
	진출방안	- 온라인 플랫폼 출시를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연락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를 수출 -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몰과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입이 바람직함
분야 3		
음식 배달 서비스	선정사유	- 골목길이 많은 가나의 도로 특성상 포장 후 회사나 집까지 가져가는 것에 어려움 - 배달 문화가 보편화하고 GPS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배달 서비스가 아크라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시장동향	- 노점 또는 가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넓지 않은 식당 구조로 포장 고객이 많음 - 요일별, 식당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수요가 높음
	경쟁동향	- 나이지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가나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는 Jumia Food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
	진출방안	- 현재 음식 배달이 가능한 곳은 수도 아크라와 테마에만 한정되어 있고, 식당 수도 적은 편이므로 배달 가능 지역을 넓히고 많은 식당과 제휴를 맺을 시 큰 경쟁력을 가짐 - 현재 배달 시간은 최소 30~40분 이상으로 '빠른 배달 시간'을 내세워 운영하는 것을 추천
분야 4		
무인경비 시스템	선정사유	- 관공서는 물론 고급 빌라, 일반주택까지 경비원을 두고 있으나 보안이 허술함
	시장동향	- 대부분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무인화 시스템으로 경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묾 - 보안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종종 도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며, 도난범이 경비원의 지인인 경우도 있었음
	경쟁동향	- 무인경비 시스템보다는 사설 경비업체들이 경쟁업체임 - 가나 내 무인경비 시스템 시장의 진입장벽은 매우 낮음
	진출방안	- 무인경비 시스템의 효율성과 높은 보안 등급, 신속성을 보장할 시 진출 매우 유망

<코트디부아르>

분야 1		
의료	선정사유	말라리아, 에이즈, 장티푸스 등 열대 풍토병 발발이 만연, 관련 제품·의료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의료시설 부족,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여 병원 건설 추진, 의료장비 교체 수요 증가
	경쟁동향	유럽, 미국, 중국기업과 경쟁
	진출방안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공립병원 건설 사업 적극 추진 및 이를 활용한 제품·설비 납품 추진
분야 2		
정보통신	선정사유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 및 수요 확대
	시장동향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프로젝트 수주지원 요청이 있으나 재원이 부족한 실정
	경쟁동향	프랑스, 일본, 미국기업 진출
	진출방안	기술협력, 장비 지원 등 원조·공헌활동을 토대로 국가 브랜드·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진출기반 조성
분야 3		
인프라/플랜트	선정사유	한국 기술력에 대한 높은 인지도
	시장동향	MDB, 차관 등 국외 재원 확보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
	경쟁동향	중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프로젝트 자수 추진
	진출방안	EDCF 지원 사업, AfDB 주도 사업 진출 참여 제고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	• 2020 아프리카 소비재 대전 – 국내 소비재 유망기업 홍보 및 남아공 및 아프리카 대형 유통 및 벤더 초청 상담회	4분기/케이프타운
	• 한국 소비재 상품전	10월/나이로비
	• 2020 서아프리카 한국 소비재 대전	10월/미정
의료	• 2020 남아공 국제의료기기 전시회(Africa Health 2020)	5월 12~14일/요하네스버그
	• 나이지리아 국제의료전시회(Medic West Africa)	10월/라고스
인프라/플랜트	• MDB·글로벌 개발펀드 프로젝트 대비 플랜트·시공기술 설명회(잠정)	상반기/다레살람
	• 나이지리아 인프라 프로젝트 상담회	9월/미정
	• AfDB 활용 인프라 수주사절단 – AfDB 및 발주처 초청 설명회, 프로젝트 수주 상담회	3분기/아비장
종합박람회	• 카르툼 국제박람회	1월/카르툼
	• 마푸투 국제종합 박람회(FACIM)	8월/마푸투
기타	• IT 컨소시엄 수출 지원 사업	연중/탄자니아
	• 콘자 테크노시티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제안(KSP)	연중/나이로비
	• 스타트업 파트너링(창업진출) – Unicef Nairobi Innovation Week 연계	5월/나이로비
	• 현지 대기업과 협력, 수단 제조업 육성 정책 연계사업 – 수단 대기업의 기자재, 장비 소싱 대응 및 중소형 플랜트 수출 지원	연중/카르툼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내용	일시(잠정)	비고
토고 대선	2020.4월	
에티오피아 인민대표부 및 지방 국회의원 선거	2020.5월	
부룬디 대선 및 총선	2020.5 ~ 6월	
코트디부아르 대선	2020.10월	
탄자니아 대선 및 총선	2020.10월	
수단 총선 및 지방 선거	연중	
부르키나파소 대선 및 총선	2020.11월	
세이셸 대선	2020.10 ~ 12월	
가나 대선 및 총선	2020.12.7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내용	일시(잠정)	비고
33rd African Union Summit	2020.1.30 ~ 31	아디스아바바
AfCFTA 협상 완료	2020.6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단일화폐(ECO) 도입	연중	추진 중이나 실제 도입 여부는 불분명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시/장소
의료	의료기기	Africa Health 2020	2020.5월 /요하네스버그
		Medic West Africa	2020.9월 /라고스
건설	건설 건축 설비 자재	African Construction and Totally Concrete Expo	2020.6월 /요하네스버그
	건설, 건축	SALON INTERNATIONAL DU BÂTIMENT 2020	2020.6월 /아비장
	건축	Kenya Build Expo 2020	2020.11월 /나이로비
소비재	식품 음료	Africa's Big 7	2020.6월 /요하네스버그
	화장품	Professional Beauty Johannesburg	2020.8월 /요하네스버그
	소비재 전반	아프리카 소비재대전	2020.10월(잠정)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

에너지	무역, 물류, 에너지	ATTES	2020.2월 /아크라
	천연가스	Mozambique Gas Summit	2020.11월 /마푸투
농업	농산물, 농식품	FOIRE AGRICOLE COMMERCIALE DE CÔTE D'IVOIRE 2020	2020.7월 /아비장
기타	종합	카르툼 국제 박람회	2020.1월 /카르툼
		Ghana Trade Show	2020.1~2월 /아크라
		Dar es Salaam International Trade Fair	2020.7월 /다레살람
		마푸투 국제종합 박람회	2020.8월 /마푸투
		아부자 국제무역 박람회	2020.9월 /아부자
		케냐 국제 무역 전시회	2020.9~10월 /나이로비
		라고스 국제무역 박람회	2020.11월 /라고스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손병일**	본부장	아프리카지역본부	+27117842940	pison@kotra.or.kr
2	**이종민**	차장	아프리카지역본부		yesmin@kotra.or.kr
3	**최다은**	대리	아프리카지역본부		danichoi@kotra.or.kr
4	**정미성**	대리	요하네스버그무역관		misung@kotra.or.kr

KOTRA자료 20-033

2020 권역별 진출전략 아프리카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79-1(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